후원회소식

통권 184호 | 발행일 2007. 2. 15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부정비리 사면 중단, 양심수 사면

2007년 2월 8일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비리재벌, 정치인사면 중단하고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재판방청기 · 장민호씨 가족과 함께하다 임미영 • 6 / 감옥에서 온 편지 박종기/손정목/장석철/전욱용 • 12 / 성명서 · 양심수를 외면한 부정 비리 사면을 규탄한다 • 16 / 기고 · 인혁당사건 재심 판결 권오헌 • 18 / 이런회원 · 정형근 회원 이득형 • 20 / 회원마당 · 산행기 조동만 • 24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6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8 / 재정보고 • 39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4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는나라, 부끄러운 나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낡은 냉전공안논리를 고발한다-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회장

법정이 검찰과 피고인(변호인 포함)사이에 공소유지와 방어권을 둘러싼 첨예한 공방의 현장이라면 요즘 서초동 법원의 어떤 법정들이야말로 국가보안법 존립문제를 비롯하여 이북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 국가기밀 등 정의를 놓고 쌍방 사이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진실게임의 전투장이 되고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1일 서초동 법원 419호 형사 대법정에서는 서울 지방법원 형사 합의 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이 잡혀있었다. 이정훈씨는 이미 모두 진술과 검찰의 직접 심문에서 같은 사건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듯이 이 사건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과 이른바 '일심회'의 실체를 비롯한 공소내용들을 부인하며 갈라진 나라의 민족구성원으로서 자주통일운동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날 변호인 반대심문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어논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정훈씨는 반대질문에 앞서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이 사건 판단에 참고해줄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 본인은 이북이 '반국가단체'이며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음' 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있음. 과연 이북이 반국가단체이며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있는지 유엔사무국과 사무총장, 그리고 이북의 유엔대표부와, 유엔대사에게 그 답변을 바라는 질의서를 보냈음.

UN사무국과 사무총장에 보내준 질의서(요약)

① 현재 대한민국(R.O.K)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가?

② 북한(D.P.R.K)은 '정부'나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나 혹은 '불법단체' 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③ 만약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고 하면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UN에 반국가단체 가입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④ UN이 여러차례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 과 '사상탄압'을 이유로 폐지할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UN의 입장은 현재 변함이 없는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UN대표부와 UN대사에 보내는 질의서

①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북한을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대한 법리적 입장은 무엇인가.

②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회원국을 '불법단체'나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유엔정신과 유엔자체 회원국 규칙에 맞는 것인지 입장은?

③ 북한에는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남한정부를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내부법률>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구체적 법률 내용은?

④ 본 재판에 관한 공소장의 국가보안법 중심 근거는 북한의 변함없는 적화통일전략에 남측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것인데 …중략… 북한의 통일정책

과 법과 관련된 내용 중 남한 자본주의 전복과 남한 공산화에 대한 통일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음.

위 인용된 발언요지는 유엔사무총장과 이북 유엔대표부에 이북이 '반국가단체'이며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내용이다. 이제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피의자들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혐의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위헌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거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한 예는 많았지만 위 내용과 같은 이북의 '반국가 단체' 또는 '불법단체' 그리고 '적화통일 목표' 여부 등을 유엔사무총장과 이북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하기는 이정훈씨의 위와 같은 '질의'가 처음이다.

이미 다 알려진 판례로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국가보안법 7조 1항 과 5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전과 다름없이 한정 합헌을 선고했었다.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에 대한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천명하는 시대역행적 모습을 드러냈었다. 이에 반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며 이 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1999. 12. 5 –그외 다수 있음)

그런데 비록 하급법원이기는 하지만 1999년 4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판례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으게 했다. 바로 이 법원 형사 합의 4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고 이적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은 이어 "북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 없다. 6기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강령을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적단체로 볼 수 없고 달리 이적단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같은 무죄판결은 국가보안법 적용의 남용에 대한 제동만은 아닌 것이 분명했다. 바로 이적단체 규정에는 그에 앞선 반국가 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가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할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국제법상' 가능한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4부의 이러한 판단은 이 땅의 박제된 냉전 · 공안 구조에서는 거의 빛을 보지 못했다. 이 나라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이나 법령의 합법성 여부를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한결같이 이북이 '평화통일의 동반자이면서 적화통일을 노리는 반국가 단체로서 이중성을 갖는다'는 애매하고 상투적인 판시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더구나 공안검찰은 국가보안법 관련 공소장 머리에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이고 '주체사상(이전에는 맑스 · 레닌주의라고 했음)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노선에 따라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라고 되풀이해오고 있다. 수많은 국가보안법 관련 피의자들이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공안당국에게는 '우이독경'일 뿐이었다.

이러한 공안당국의 맹목적 고집은 이정훈씨가 유엔사무총장과 이북의 유엔대표부에 질의서를 내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바로 '유엔과 연관된 남한(R.O.K)과 북한(D.P.R.K)의 국제적 국가지위에 관한 문제를 유엔 입장에서 표명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현재 남한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내에서의 국가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체계와 법운영에 지대한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단순한 국가지위에 관한 정의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탄압'과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으로는 "한반도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민족내부의 두개의 과도적 합법정부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엔사무총장이 이정훈씨 청원에 답변을 보내 온다면 그 내용은 분명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당연히 합법정부이며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국가권력이 미치는 휴전선 이남에서만 유일 합법정부이다'라고. 실제로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유일 합법정부라고 승인한 것도 38도선 이남 지역이었을 뿐이었다. 또한 1991년 9월 17일 제 46차 유엔총회에서는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을 유엔회원국으로 가입을 결의했다. 유엔회원국 지위는 헌장이 규정한 의무를 수락하고 (유엔)기구가 판단하는 '평화애호국'만이 가능하다. 그뿐인가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는 남과 북이 'R.O.K'와 'D.P.R.K'의 팻말을 앞에 놓고 마주앉아 있으며 지난해 하노이에서 있었던 아펙정상회담에서 미국대통령 부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정상이 함께 서명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의 상투적인 냉전논리의 모순성은 직접 남북관계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자주 · 평화통일 · 민족대단결 등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한 '7 · 4남북공동성명'을 남북의 최고통치권자의 위임에 따라 합의서명했으며(1972. 7. 4) 서로의 존재(체제, 제도 등)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용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다(1992. 2. 19). 그리고 7 · 4 남북공동성명을 재천명한 '6 · 15남북공동선언'을 남북 최정상이 직접서명했다(2000. 6. 15).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와 이같은 합의를 할수 있단 말인가.

그 밖에도 남북사이에 (오늘 잠시 중단되고 있지만)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군사, 경제, 문화, 적십자회담 등 당국자 회담이 이어져 왔으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각종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남북 왕래인원이 10만명이 넘어섰고 (금강산 관광객 제외) 남북교역은 13억 5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이북이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국제법상으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이 박제된 냉전 · 공안 논리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합법정부임을 부정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당국이 한결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또하나 잠꼬대는 이북이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고집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정훈씨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에서 그 허구성이 자세히 드러나게 되었다. 바로 변호인은 이북의 '통일대장전'이라 할 수 있는 '조국통일 삼대헌장' 내용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예로써 1972년 7월 4일 발표된 '7 · 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과 특히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대단결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 다음으로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김일성주석의 보고였던 '고려민주연방제창립방안'의 예를 들었다. 창립방안에서는 '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결성하는 것이고 북과 남에 두개의 지역자치정부를 수립하고 그 위에 통일연방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방안에 이남을 적화 또는 공산화하겠다는 논리는 없다. 이어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의 김일성 주석의 연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들었다. 10대강령에서는 '①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 · 평화 · 중립 통일국가 창립 ②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으로 대단결하고 ③공존 · 공영 ·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의 단결 ④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경쟁을 중지하고 ⑤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추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결하며 ⑥민주주의를 귀중히 하며 주의주장이 다르다하여 배척하지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아야하고 ⑦개인이나 단체나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 ⑧접촉 · 왕래 ·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해야 하고 ⑨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의 연대성 강화 ⑩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고 했다. 어느 항목에서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같은 내용을 변호인은 공판주의 원칙의 법정에서 반대심문을 통해 확인시키고 있었다.

현재 국가보안법 관련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내사중에 있는 혐의로 이른바 '국가기밀누설'이 있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그렇고 강순정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이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진작가이자 평화활동가로 인터넷뉴스 전문기자인 이시우씨가 같은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심회 사건에서는 민주노동당 당사업과 관련된 문건을 북으로 보냈다는 혐의이고 강순정씨는 범민련 활동을 한 해외동포에게 시민사회단체 동향을 보냈다는 혐의이다. 그러나 위의 혐의와 의혹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더욱이 오늘은 인터넷시대이다. 이보다 더한 지식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더구나 이시우씨의 경우 한 · 미연합사 등의 허가를 받아 취재한 내용이고 다른 환경단체에서 촬영되어 공개된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비공지성과 북한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국가기밀의) 기준이며 판례에 비추어 시민사회단체의 동향은 국가기밀이다.' 라고 말했었다. 이는 대법판례를 염두에 둔 냉전 · 공안논리일 뿐이다.

바로 이북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대북대결의식의 소산이다. 어떤 모자회사 회장이 '북한동향과 관련한 국내정세분석'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미국측이 취해야 할 방향' 등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미국정보기관 등에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점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바로 반북숭미의 전형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59년을 맞는 오늘 이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에 의한 탄압사례들은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사이기도 했다.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청년, 학생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사법살인 당했었다. 6 · 15공동선언시대 국가보안법의 존립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구냉전집단의 발호에 편승한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위에서 말했던 사건 말고도 통일시대를 맞는 참교육실천활동을 했던 전교조선생님들이 부당하게 구속되었고,조국 사랑의 열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총련 대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수배를 당하고 출두요구서를 받고있다. 또한 비전향장기수 묘역조성과 추모제 관련으로 불구속 기소되거나 출두요구서를 받고있다. 이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상 찬양 · 고무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조차도 독소조항이라며 없애야 한다고 했던 7조 1항, 5항 등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로 가는 6 · 15공동선언을 가로막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학문 · 예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규정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관련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범민련, 범청학련, 한청,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 철회하고 수배조치 해제하라.

우리도 항상 함께 하여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장민호님의 어머님과 누님을 만나뵙다.

임미영 | 양심수후원회 사무차장

날이 참 따뜻했습니다. 아마 남녘에는 매화가 꽃망울이라도 터뜨리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른 개화를, 또 이렇게 춥지만 않아도 살만하다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어머니는 언 땅의 한복판에 시린 가슴으로 서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 나라가 적어도 개명한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아들의 구속은 개명천지에 날벼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선일보의 기사 따위를 무슨 경전이나 되는 것처럼 떠받드는 몰지각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고 몹시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입은 상처는 어머니를 질리게 하였습니다. 그저 착하기만 하고 제 실속 하나 차리지 못하는 아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탓하고 있을 시간은 이제 없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공동의 선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면서 혈육에게 내색하지 않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 애당초 부당할 뿐인 국가보안법이라는 법 –물론 대한민국에는 그 법으로 배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 의해 갇히자 어미로서 그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플 뿐입니다. 국가야 그런 폭력행사에 어디 왼눈 하나 깜짝했겠습니까. 그러나 가족들은 금방 그 폭력의 장에 내동댕이쳐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조차 그 와중에 다급하게 아들 곁에서 떠났습니다. 하필 아들이 갇혀있는 그때에 말입니다. 어머니는 다만 아들을 부당한 법으로 감옥에 뺏긴 한 사람으로 남아서 차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었으면 했지만 먼 이국으로 떠나있는 중에도 아들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이웃이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사는 데는 분명히 그런 조건 속에 놓여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그런 평화롭고 선진적인 조건을 국민에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이 마

치 토대가 굳건한, 완성에 이른 나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겪고 그 독재정권을 이끌던 몇 사람은 죽거나 감옥에도 가고 또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올림픽과 월드컵도 치르고—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그것이 마치 레드 컴플렉스를 극복한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 강남에 부자들이 득실대고 나라 곳곳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늘 끝닿은 데 없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뻥뻥 뚫려 서울이고 지방이고 없이 차들이 물밀듯이 오가고 IT강국이고 인터넷 이용 인구가 인구비율로 따져 세계 1,2위를 달리고 물건들이 넘쳐나고 무슨 인공위성을 쏴올리고 원자력이니 화력발전소다 뭐다 해서 전기가 넘쳐나고 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줄줄이 늘어놓다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더 미심쩍어 집니다. 엄연히 막강 미국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엔이 인정한 국가인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왜 속속들이 우리 안에서 금지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쉬운 의구심조차 국가보안법이라는 쓰레기만도 못한 법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나누지 않았지만 그 나누어진 남쪽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일제식민지배 이래로 미국이 군사 문화 경제에 대해 초법적 주권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위정자들을 위시한 수구보수세력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이익이나 되는 것처럼 날조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자주적 이념과 사상이 강건한 주권국가가 있습니다. 공히 모든 인민대중이 평등하게 잘 살자라는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나라입니다. 자주 자력 갱생으로 초강대국의 온갖 책략과 모략과 방해에도 굳건히 버티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바로 내 형제부모의 고향이기도 하고 미제의 압제에 맞서며 어른 아이할 것없이 통일의 열망에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대한 관심을 누군들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걸핏하면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고래적의, 이야기 속의 조상들도 내 민족이라 우기며 떠받들고 하는 판에 도데체 무슨 나라가 자신의 반쪽이라고 우기는 땅에, 저 넓은 대륙으로 통하는 그곳에 대한 애정을 모조리 세계 어디에도 없는 괴물같은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굳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형제 내 가족 다 죽이는 강도를 집에 들여다가 그 강도들에게 복종하여 노예처럼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전방위로 악법일 뿐인 국가보안법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 10월 24일 장민호씨가 국정원에 연행되고 구속되었을 때 그 근거는 오로지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장민호씨가 북으로부터 통일사업조직을 꾸리라는 지령을 받아서 일심회를 조직하여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통일부라는 국가중앙행정기구가 있습니다. 이 통일부의 설립목적이 남북공동평화의 실현이며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기 위하 것이랍니다. 바로 통일 사업을 크게는 나라에서 꾸려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습게도 이런 기구는 사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은 명백한 함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조차 적대국인 이북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출입과 이북에 대한 논의나 개인적 물자지원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틀에서 명분상 그것을 금하고 있을 뿐입니다.,

1983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재학시절에 장민호씨가 경험한 미국의 대학생활은 적어도 모

든 논의가 개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민호씨는 미국정부의 그라나다 침공 등 대외정책과 핵과 반인종 반인권정책을 반대하는 시사토론 모임인 이른바 <스파르타쿠스>라는 써클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써클은 다수의 미국인과 다른 나라 유학생들도 참여하여 미국정부의 대외정책을 대한 교재를 정하고 발제 토론하고 정치정세와 관련된 자료를 각자 수집해 와서 그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도 하는 등 미국의 정치정세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일정의 실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모임의 형태는 공개적이었고 때로는 모임 구성원 간에 비공식적인 만남도 많았으며 여기서 '비공식'이란 비합법과 다른 의미로 그런 만남이 불법이어서 외부에 숨겼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자유 의지에 관한 일입니다. 비공개 만남이 있었던 이유는 이 모임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토론모임이다 보니 미국이 개입하고 있거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세계 각국의 출신들이 이 모임에 가입한 경우 그 친구에게 직접 미국의 해당 국가에 대한 개입상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장민호씨 또한 유일한 한국인으로 이 모임 구성원들이 일대일로 만나 한국의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큰 분기점을 이루었던 광주민중항쟁과 그 과정에서 전두환살인정권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군부독재, 남북분단 그리고 북한사회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자 그들의 제안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 중 일부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아닌 장민호씨와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 그 당시 피상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였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남북한의 상황,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지도자나 정치체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였을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장민호씨는 북한에 대한 논의가 금지되어있었던 곳에서 살았던 스무 살 초반의 사람이었고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북한과 분단문제에 대해서 아는 게 부족하여 그들의 진지한 궁금증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도서관에서 주체사상선집 등 북한관련 서적을 빌려서 읽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장민호씨는 지금 검찰이 무슨 큰 단위의 조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일심회'라는 명칭을 스스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대학시절 경험해 본 개인적 만남을 통해 많은 정보공유나 현안 고민의 필요성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 만든 순전히 자신만의 이름이었습니다.

장민호씨는 1988년 경 미주 국민운동본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김윤성(검찰 북공작원으로 추정, 장민호는 교포 무역업자 인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87년 6월 항쟁 등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에 함께하려는 미주지역의 대표적인 운동본부였습니다. 당시 미주지역에서는 재미교포들의 북한 접촉이 활발하였고 6.29선언 이후 남한에서도 그러했듯이 통일운동과 북한바로알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포들의 북한 접촉의 동기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1945년, 1950년 시기 월남한 이북출신자들이 이남 정착에 실패하여 미국 이민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국내의 이산가족찾기와 무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혹은 북한 방문을 통하여 북의 가족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법적인 특성, 즉 국가보안법 등이 없고 사상의 자유가 대체로 보장되는 조건에 따라 해외 특히 미주 운동의 본질은 통일운동(3자연대운동 등)으로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1980년대부터 활성화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는 움직임 또한 있었습니다. 더불어 미국내 교포 무역업자들의 상당수가 대중국 교류를 하고 있는데 중국 교류 경험을 통하여 대북교류기회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장민호씨는 김윤성이 미국내 교포 무역업자로서 대중국 교류 경험을 통해 북에 자연스럽게 다녀온 사람들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이후 몇 번의 만남을 통해 통일과 반전 등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민호씨는 어머니의 병세 악화로 곧 귀국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북한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1989년 방북을 결심하였습니다. 당시 미주지역의 저명한 학자, 정치인, 종교인 등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방북을 권유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장민호씨는 당연히 이 기회를 헛되이 놓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민호씨는 남한에서는 감히 꿈조차 꾸지 못할 북녘 땅으로 가서 잘 보존된 유적지 관광과 북한사회를 올바로 알 수 있는 사회과학원 교수들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1989년 당시는 평양축전을 앞두고 미주를 비롯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머무르며 각종 세미나와 행사들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장민호씨는 거기에서 매우 활발하고 개방적인 북한사회를 느낄 수 있었고 다만 금지되어 있어서 가질 수 밖에 없는 북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주 중앙일보기자로 재직할 당시 이 도시는 매우 진보적인 도시로써 1980년대에는 레이건의 대 소련 강경책 및 핵무기 정책에 반대하는 반전, 평화 운동과 중남미 등 제 3세계의 인권과 민주화를 지원하는 운동의 메카였습니다. 제3세계 사람들의 활동방식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그 중에는 장민호씨는 니카라과이, 과테말라 등에서 온 사람들이 본국의 소식, 예술품(민족 미술품과 공연물 등)을 미국사회에 들여와서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독재정권 지원이나 자원개발을 통한 엄청난 부를 착취하는 실상을 알리는 한편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 그들 민족의 경제적 기반도 동시에 마련하였던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장민호씨도 이를 바람직한 방법으로 받아들이면서 민족학교에서의 활동을 모범삼아 주로 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판화와 그림 등을 들여와서 미국에 판매하고 이를 통해 광주민중항쟁의 진실_미국의 지원 아래 행해진 전두환정권의 살인만행을 알리고 한편으로 한국의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장민호씨의 이와 같은 활동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에 구애받지 않는 미국시민권자인 것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북과 관련된 경제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북의 실상에 보다 가까이 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족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믿었으며 장차 민족경제사업가가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장민호씨는 미국시민권자로서 당연히 북에서 유학온 학생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정치 경제 학문 등을 토로할 수 있었듯이 북을 적대시하는 한국의 헌법에 제약되지 않고 자유롭게 북의 동포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사업상 용이했던 중국이나 동남아 출장 중에 북측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중국 등지에서 사업협력 뿐 아니라 분단상황에서 자연스레 통일에 대한 관심과 견해와 서로 조력할 수 있는 방향 등을 이야기 하게 되는 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자신의 통일에 대한 열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진정한 기회라고 믿었으며 또한 민족경제협력가라는 자부심을 내부에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장민호씨는 또 그러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신념의 선상에 서있는 사람이었던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최기영씨 등과 관계

를 맺게 되었고 이미 개개인이 분단국가의 한 성원으로서 본질적으로 통일에 대해 공통적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금상첨화로 동종의 사업도 꾸려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익숙해지자 재미시절 참여했던 '스파르타쿠스' 모임의 형식을 빌어 관심분야의 사람들과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나름대로 통일운동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므로 그것은 처음부터 사람을 목적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한 당위로서 열중하고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민호씨는 재판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심문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또 IT업계 전문경영인으로 굳이 쉽지 않은 북한과 접촉하면서 나름대로 통일운동을 하려 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주관적 이유와 객관적 이유를 들어 이야기 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대변되는 사회변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가족부양 등 우선 경제적 활동을 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상황과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질서로 자리잡은 한국에서 온통 사회변혁운동에만 자신을 투신하는 것은 한계가 많았으며 그러자 그런 사회적모순의 원인인 남북 분단상황에서 합법적이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1998년경에 이르자 IMF사태의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해고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들 중 기술 전문가들이 미국의 IT산업의 첨단메카로 불리우는 실리콘밸리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의 사람들이 중요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대만, 중국 등에 빼돌리려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장민호씨는 국정원에그들을 신고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나누어져 서로 적대적이라 생각했던 중국과 대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와 같은—같은 맥락은 아니라 해도 —분단국가인 대만과 중국이지만 민족의 이익을 위해 중화권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에서 남북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1999년 나래디지털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을 때 미국측 파트너인 파운데이션 이미지의 <폴 브라이언트>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폴 브라이언트는 진보적 사상을 가진 무정부주의자로써 경제적 이득이 되는 사업에 관한 능력이 탁월하였고 그 이익금으로 미국과 영국 등의 반전평화운동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와 경제적 수익사업과 진보적 사회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언젠가는 북한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하청을 받아 작업을 하였다며 좋은 기술과 값싼 노동력을 가진 북한과의 애니메이션 합작 등 경제 사업에 대해 조언을 기꺼이 해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장민호씨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어감에 따라 북한과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생산을 하고자 하였으나 '나래이동통신그룹'의 재정난과 법적제약(바르셀로나 조약에 의하여 북측에 컴퓨터 등 제작 장비 반입이 불가능하게 됨)에 의하여 무산되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사업의 발전을 통한 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한 통일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경제 사업가의 길을 결심하였으며 2000년 6.15 선언을 거치며 경제사업을 넘어서 정치, 사회분야의 통일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국내에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사람들과 북에 대한 관심과 한 민족으로서의 애정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민호씨는 국정원에 연행되어 왔을 때 압수

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디스켓 라벨이 없는 등 출처가 불명확하여 확인을 거부하였는데 국정원에서 부인과 직원들을 불러다 조사를 하겠다는 등 공공연히 협박을 하였으며 그 많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심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형식적으로 묵비권의 권리를 공지하기도 하였지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양형상 도움이 된다고 협박하였고, 변호인의 접견내용에 대해 장민호씨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기소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2차례나 소환하였습니다. 소환의 이유도 공지하지 않았고 실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 없는 소환 등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부부를 구속시키겠다, 아이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다, 미국의 반테러법을 적용하게 하면 한국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등등의 협박을 일삼아 아무런 마음의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가족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장민호씨로 하여금 잠깐이나마 공황상태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부인은 서둘러 이혼수속을 끝내고 미국으로 아이들과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이 이런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슴아픕니다.

아들의 이혼으로 거처를 잃은 어머니는 짐을 꾸려 따님 장화옥씨 집에 가서 머물고 있지만 그 심경 또한 암담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님 장화옥님은 처음과는 달리 이성적으로 이 사건을 직시하게 되었으며 이제 면회를 간다거나 재판정에 갈 때면 동생을 깊이 연민하고 가족들을 걱정하여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 장민호씨의 마음씀씀이에 대해 오히려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민호씨가 재판정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흰 고무신을 신고나오는 것도, 바깥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혼의 아픔에 대해 내색하지 않는 것도,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조용한 것도 다 안쓰럽기 짝이 없지만 그런 여린 모습과는 달리 저토록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참에 알게 되어 가족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처럼 장민호씨가 지향하는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연함을 보여 힘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누님 장화옥님에게는 우선 아들의 상태에 대해 실의에 잠긴 어머니를 위로하는 일이며 또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선량한 인간이며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항상 타인에 더 많이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한시라도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정의로운 인간인가를 이해해고 북돋아 주어야 하고 그 결과로 지금은 당장 고통 중에 있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고 또 조국통일이나 국가보안법철폐 운동 등등이 신문에서나 볼 수 있는 자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할 일이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쉽지않음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서 오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어머니를 옆에 두고 그렇게 찌개가 닳도록 누님 장화옥님과 조용하게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히 제가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다고 말씀드리자 손사래를 치십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아들을 깊이 신뢰하고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힘내십시오!

반대심문에서의 내용 정리는 이 사건의 가족 대표 문치웅님이 도왔습니다.

박종기 님의 편지

양심수후원회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금되어 있는 운수노동자입니다. 평생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운전을 업으로 한 덕에 큰 꿈이 있었습니다. 이 좁디좁은 반도의 절반을 너머 시베리아 유럽으로 차를 몰고 대륙의 끝까지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운전을 업으로 사는 모든 노동자의 바램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문익환목사의 방북과 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감격했고 이제 통일은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내 눈으로 모두를 확인하고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자 결심하고 북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행동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민족적 열망과 호기심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요 아직도.... 어쩌면 통일이 미래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또한 역사의 죄업이 아닐런지요. 남북간에는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 걸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누군가는 현장으로 북으로 들어가 다리를 놓고 환충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요. 남북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북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똑같이 노동하고 어울려 부대낌으로써 자연스럽게 남북이 상이한 문호가 공존하거나 융화되리라 확신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먹고 먹히는 일이 없는 통일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문익환선생님의 선구적 통일철학이었듯이 남북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상호존중과 공존 융화는 절대적 조건일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장기수 선생님들이 송환되어 남북통일의 훌륭한 가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것만으로 통일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남한 노동자로서는 최초로 북으로 들어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되기를 자처한 자가 아니었나 합니다만 비록 뜻은 이루지 못하고 귀환하였지만 역사에는 기록되리라 희망하며 힘들고 외로운 옥살이를 이겨낼 것입니다 한 노동자가 큰 꿈을 품고 도전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하며 어려울 때 격려와 용기를 복돋아 준 여러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치금 책자 너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영치금은 제게 보내지 말고 다른 힘든 양심수에게 보내주십시오. 가능하면 후원회 소식지만으로 감사하고 영광이겠습니다. 재판 끝나면 다시 편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박종기 드림

(이편지는 박종기님께서 뒤늦게 보내신것입니다. 지금은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십니다.)

양심수후원회 여러분들께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저는 국가보안법 잠입탈출죄로 수감되어 있는 노동자입니다. 3달 가까이 참 외롭게 지냈는데 양심수 후원회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고 더 꿋꿋이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징역 3년이라는 큰 벌을 받았지만 통일로 가는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여기서도 내가 할 일이 없나를 고민해 볼

것입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문외한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국정원이 묻는대로 요구하는 대로 대답하다 보니 큰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도심문에 넘어가고 심리전에 말려들어 거의 간첩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6조2항은 위반은 간첩죄는 아니라지만 일종의 간첩예비음모죄인것 같은데 지령수수죄에 제가 걸려든 것입니다. 북에서 보위부 간부(2-4급) 10여 명을 만나 회합을 하고 왔으니 지령수수를 아니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때 혁명적 사회주의자였고 귀국 후에는 인터넷에 500여 건의 글을 올려 사상의 도구로 삼고 북을 찬양고무까지 하였으니 그것이 찬양고무죄가아니고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간결하고 내용이 부실한 것임에도 찬양죄라 합니다. 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아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방북이 통일을 위하고 순수한 의도로 이루어지긴 했어도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니 엄벌을 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너무 떳떳했기에 많아야 1년 정도 받겠지 했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통일의 길이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옛날에 다 이루어졌겠지요. 여러 동지들이 잇다는 것으로 (안팍으로) 힘이 되고 시련을 이겨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후원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운을 빕니다. 또 언제 기회되면 편지 올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1일 노동자 박종기

※후원회 소식지는 수시로(4번 독파) 읽어서 언제나 동무입니다.

손정목 님의 편지

권오헌 회장님 그리고 후원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손정목입니다. 보내주신 회보 책자 그리고 귀한 영치금 잘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춥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직접 찾아와 면회까지 해주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여년 전 대전교도소를 어머님들의 성원과 투쟁에 힘입어 출소하면서 제대로 된 일을 하려 하였는데 이제 또 다시 들어와 회원님들의 후원을 받게 되니 우선적으로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권오헌 회장님 그리고 양심수후원회 회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잘 아시겠지만 올해 2007년은 지난 시기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세웠던 60년 , 79년 ,80년, 87년과 버금가는 어쩌면 그 이상일 수 있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외세와 그에 결탁한 무리들이 또 다시 나라의 주권을 농간하려는 것을 막아내어 민족과 통일과 민중의 권익신장에 일대 전환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 길만이 저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이 모두 풀려나는 그리하여 참된 민주주의의 기초가 완성되는 첩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권오헌 회장님 회원님들의 두터운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디 올 해 우리 모두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기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2007년 1월 11일 손정목올림

장석철 님의 편지

권오헌회장님과 회원들게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전) 수석부위원장직을 맡았던 장석철입니다. 지금은 성남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매월 '민족21 소식지 영치금'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006년도엔 우리 노동자들 중에서도 건설노조간부들이 많이 구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밖에 소식을 접하는데 민가협어머님들이 매주 목요집회를 하시느라 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감옥에 양심수가 없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민중을 제대로 알고 무엇이 어려운 데가 있는가 삶을 제대로 읽어내어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음 하는 바이고 지난 번 역사가 말해주듯이 인혁당 사건 말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아서 당연한 것이지만 피해자 당사자들의 억울함과 한많은 사연을 어떻게 떨쳐버릴지가 국가에서 보상은 하겠지만 그분들의 넋을 달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식지에서 정관호선생님의 글을 보고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서적으로라도 펼쳐졌으면 합니다. 저는 이곳 수원구치소에서 영어의 몸이지만 이후 나가게 되면 노동자들의 권익도 챙기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 또한 열심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막 신문이 도착했습니다.

천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지도부 선거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석행위원장님과 이용석 사무총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올해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실업의 고통에서 많은 노동자가 벗어나고 어렵고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민중들을 보호할 수 있는 투쟁을 힘차게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권오헌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엔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나가게 되면 연탄 한 장이 되어 추운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1월 29일

수원구치소 장석철 올림

전욱용 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님과 회원들게

보내주신 후원회소식지 183호와 민족21과 영치금 감사하게 소중하게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매번 부족한 저에게 '양심수'라고 불러주시고 아낌없는 후원을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와져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몸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2007년 1월 29일

광주교도소에서 전욱용 삼가 씁니다.

입춘

정관호 | 출소장기수

방이 나붙지 않아도

아이들이 먼저 알아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딸네집 가듯 여든 할머니도

볕바래기 마실로 동네 고샅길에 나선다

하마 풍년화는 피었을 테고

바지런이 풀꽃 복수초 차례쯤 되리라

시름이야 언제고 있는 거지만

한번쯤은 길게 기지개라도 켜볼 일 같다

단내나는 이부자리 볕에 내걸고

지린내 풍기는 방구석도 훔치고 닦아서

보송보송 마른 자리 새로 꾸며야지

많은 인총 비비대고 사는 세상에

어찌 시빗거리 골칫거리 매끈히 없을까

어쨌거나 더불어 살아가려는데

새 해 봄맞이는 바람 없이 따스하다.

정관호 선생님은 원산 교원대학 노어과 교수로 재직중 전쟁시기 전남 강진에 파견되어 교양담당 사업을 하셨고 이후 백운산 등에 입산, 전남도당 노동신문 주필 등을 하시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시다 1961 년에 출소하셨습니다.

양심수를 외면한 부정비리 사면을 규탄한다.

정의와 양심이 또다시 모독당했다. 양심수를 가두어 둔 채 범죄자를 풀어주는 뒤바뀐 정략사면 때문이었다. 정부는 12일자로 부정비리 정치인 경제인 등 204명과 선거사범을 포함한 434명을 특별사면 감형 복권조치했다. 그러나 응당 가장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양심수는 철저히 외면되었고 생계형사범마저 빠져있었다. 사면의 참뜻을 훼손시키며 최소한의 보편적 양식마저 저버린 도덕불감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 출범 4돌을 맞아 단행된 이번 사면조치와 관련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 이란 구차한 변명을 했다. 이미 이전에 불법대선자금,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사법처리 되었던 기업인들을 특별사면 하면서 밝혔던 명분없는 사유의 되풀이였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자비로운 말도 있지만 부정비리 정치인 경제인들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는 그 규모나 죄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국민경제를 망쳐놓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었다.

이같은 부정비리 사범의 사면조치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며 형평성과 사회정의를 흔들고 있어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란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었다. 당시 민변은 93년 이후 특별사면된 인사 중 특가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사범 및 99년 광복절 특사 정치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가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생길 수도 있는 사면권의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또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할 때 우리 정치 경제를 크게 흔들어 놓는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기 위해 면죄부라는 이름으로 정치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처럼 사면권 남용의 비판은 부정비리사범을 두고 나왔을 뿐 죄없이 부당하게 갇혀있는 양심수사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양심수는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의인들이다.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 자주통일 사회진보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그리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구속된 사람들이다. 비록 실정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지만 불이익을 알면서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 확신을 갖고 활동

했었기에 법적판단을 넘어 역사와 정의의 판단으로 원상회복조치가 있어야 한다. 바로 대통령 사면권을 통해 실정법을 넘는 양심의 보호와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사면의 올바른 뜻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전형적으로 대조되는 사례(사람)가 있었다. 회사돈 286억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쓰고 이를 감추려 회계장부를 조작한 재벌총수에게 검찰은 불구속기소했고 법원은 형집행을 유예했으며 형확정 6개월만에 특별 사면되었다. 한편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을 고발했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이른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고 다시 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를 낸 일로 명예회복 혐의를 씌워 실형 5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까지 3년 5개월 형을 살아야 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불의에 맞서 끊임없는 법정투쟁 옥중투쟁을 해왔고 마침내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까지 3년 가까이 징역을 살고 있었지만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뒤 지난 1월 26일까지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 반민주악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1001명이었다. 그 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제를 주장한 이유로 아직도 900명이 갇혀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양심수사면은 매우 인색하기만 했다. 2003년 4.30일 이른바 공안 노동사범 특별사면조치와 2005년 광복절 50돌 사면에서 일부양심수 사면이 있었을 뿐 이번 2·12사면조치처럼 양심수는 언제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아직도 감옥엔 자주통일운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양심수와 위에서 말한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비정규노동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 등에 맞서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노동자들, 강제철거에 맞서 주거권을 위한 활동으로, 한미FTA반대로, 참교육실천활동 때문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양심적병역거부 혐의 등으로 1000여명이 갇혀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속대상이 아니었다. 양심수를 구속하는 것은 반문명적 야만행위다. 이밖에도 한총련대의원들이 터무니없는 이적단체가입 등 혐의로 30여명이 정치수배를 당하고 있으며 14기, 15기 한총련 책임일꾼들이 같은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받고 있다. 또한 한미FTA저지와 관련 수배를 받고 있는 활동가들이 적지 않다. 양심수를 잡아가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 반통일 악법을 없애고 구속양심수석방과 사면복권 정치수배해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7. 2. 12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 판결을 보고

한찬욱 | 운영위원

저는 작년 7월.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 4차 공판을 보면서' 라는 글을 소식지(177호)에 쓰면서 「…젊은 검사가 그 엄혹한 시대를 어떻게 알고 증인신문을 할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하겠다. 많은 회원 분들의 동참 방청투쟁을 기대한다」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깐 집중조명을 받으며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다수 참여한 재심 첫 공판 때와는 달리 그 후로는 대구와 서울에 살고 있는 유족과 살아남은 사건 관련자만이 방청석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16차례나 되는 재심 공판에서도 설마 했지만 방청자 면면은 똑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집중하고 투쟁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시절의 국가살인을 밝혀내는 인혁당사건 방청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새삼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살인 정권의 잔당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선 유력후보로 미국추종 반통일 한나라당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죄과를 폭로하는 방청투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청투쟁을 통해 저들의 악랄함을 똑똑히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 결과는 검찰이 30일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지난 1월 23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만 27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중 「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회적 상황이 바뀌면 '인혁당 재건위 재심 판결은 일개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과하다' 고 깎아내리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눈치 보다가 마지못해 검찰독립과 중립성을 부르짖던 검찰이 대선 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제일 먼저 권력에 야합하며 권력의 시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제성호라는 자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전혀 범죄사실이 없는데 범죄를 뒤집어씌운 조작사건 내지 정치공작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법원의 재심결과를 다시 재심해야 한다" 운운한 것은 최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여론 지지율에 고무되어 과거 권력의 뒤를 이은 유신지지, 신군부지지 선언을 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는 듯해 너무나도 애처롭습니다.

'사법살인' 이라고 국가는 사법부에 책임을 전가했지만 이것은 '사법살인' 이 아니라 바로 '국가살인' 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유신살인' 인 것입니다. 지금 그 아류들, 후예들의 정당인 미국추종 반통일 한나라당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정권을 잡은 양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무죄판결이 되었다고 자축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투쟁의 전취물을 분열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겨우 이정도로라도 지켜낸 자주민주통일의 전취물을 보다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시금석인 대선이 있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결코 미국추종 반통일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되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

족의 내일과 6.15공동선언에 중심을 놓고 전민족이 완전히 통일단결하여 반보수대연합으로 대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은 분들은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인 진보적 지식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분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누구보다도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고 치열하게 행동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은 4·19혁명의 비상한 시기에 청년단체인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 민족통일학생연맹(민통련)을 이끌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6·25전쟁이후 처음으로 반미구호를 내걸고 한미 경제 협정이 불평등 굴욕적인 조약임을 알리는 2·8 한미경제 협정 반대 투쟁을 만들어 냈으며 국가보안법을 보다 강화한 반공임시특별법과 통일운동, 데모를 탄압하기위한 데모규제법인 2대 악법을 반대하기위한 투쟁을 연일 조직해 냈습니다. 이분들은 4월혁명의 대미(大尾)인 남북학생회담 성사 지지결의대회를 대규모로 치러내는 등 청년학생, 교원, 노동자, 농민 대중들을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노력을 가진 자는 노력으로 묶는 비상한 방법으로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대구지역에서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월 대구에서 결성된 '반독재재야민주세력단일후보추진위원회' 투쟁과 1969년 8월 결성된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경북도지부 활동이 있습니다. 1971년에도 제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결성 된 민주수호경북협의회 활동 등 쉬지 않고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2005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결정은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인들의 자주민주통일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여 다시는 이 땅에 또다시 피를 뿌리는 야만의 정권이 탄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 때 실종자 가족 모임인 '5월광장 어머니회'의 강령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우리의 자식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현재의 민주화 운동 속에 살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체 발굴을 거부한다. 모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모두 우리 자식들이다.

둘째, 우리는 어떠한 기념물 건립도 반대한다. 기념물 건립은 우리 자식들의 민주화 투쟁 정신을 화석화시켜 건축물과 돌 속에 가두는 것이다. 우리 자식들의 정신은 기념물이 아니라 현재의 투쟁을 통해 기념되고 계승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어떠한 금전 보상도 거부한다.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지 어떠한 금전으로도 대치될 수 없다. 금전 보상은 인간의 생명을 금전으로 격하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꿈꾸며

- 정형근 회원

이득형 | 후원회 운영위원

사람이 한 가지 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기는 무척 어렵다. 그 관심거리가 직업과 관련이 있거나 취미이거나 늘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류의 범위에 들지 않는 관심거리라면 꾸준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더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 이상을 한 가지 일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행동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요즘처럼 돈이 사람보다 앞서 있는 세상에서는 돈이 안 되는 일에 정성을 쏟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열의와 정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에 관심을 쏟는 사람은 더욱 달라 보인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흔치 않은 세상이기에 그는 더욱 돋보인다. 그가 바로 빛고을, 광주에 사는 정형근 회원이다(여기에서 이 이름 때문에 분노할 회원들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름이 같다고 모두 사람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위해로운 이름 때문에 이 의로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회원들께서는 이 의로운 이름에서 위해로운 이름을 한 번 이상 떠올려서는 결코, 결단코 안 된다. 제발 부탁이다. 회원들의 정신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 있으니……).

정형근 회원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양심수후원회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활동을 하는 우량 회원이다. 그를 생각하면 '진득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의 진득함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성과 자기희생이 있다. 1990년대나 2000년대에 그가 서울에서 활동할 때는 양심수후원회의 산행이나 그 밖의 행사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의와 정성으로 많은 회원의 모범이었다. 한 달에 두 번 있는 직장의 휴무를 후원회 등의 활동에 온전히 썼으니 누가 그에게 감동하지 않았겠는가? 또 그런 활동이 어떤 의무감에서라기보다는 세상을 맑고 밝게 하는 데 값어치 있게 쓰인다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의 활동은 빛났을 것이다.

그는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서 산다.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공부하고 세상을 알았다. 직접 광주민주항쟁을 겪지는 못했지만 민주항쟁의 얼과 혼을 느끼고 배우며 자랐다. 1989년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참교육을 외치며 전교조를 창립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쫓겨 나갈 때 그가 존경하고 따르던 국사 선생님이 강압에 못 이겨 전교조 탈퇴 각서를 쓰고 학생들에게 "부끄러워 너희들 앞에 설 수 없다."라며 학교를 떠나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세상과 사회에 자리한 부당한 세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세상일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광주민주항쟁 당시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우리 집이 도청 근처에 있어서 당시 시내의 분위기를 비교적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학교가 휴학이어서 어린 마음에 학교에 안 가는 자체가 좋았지만 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광주로 온 것인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총검을 든 군인 2명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큰형님과 대학교 2학년이던 삼촌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마침 할머니가 집에 계셔서 군인들을 설득했는데, 손자를 살리려는 할머니가 간절하게 눈물로 애원한 것이 통했는지 군인들은 총 개머리판으로 삼촌과 형님의 머리를 가격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나는 어린마음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광경이 가끔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르곤 해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시민군에게 준다고 김밥을 싸서 가져가던 광경도 생각이나요. 아마 그때 이후가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광주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내 생각과 행동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양심수후원회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991년, 나는 당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과제빵 기술을 익혀 서울의 빵가게에서 제빵사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중심 화제, 그 중에서 사회변혁에 관한 화제들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관심의 한 가지로 해직교사 서울 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후원회에, 지금은 덕성여대 교수가 된, 당시 문화방송 아나운서였던 손석희 씨가 와서 어떤 화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나온 양심수후원회는 내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단체로 느껴져서 그 이후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양심수후원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나요?

"위에서 이야기한 손석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늘 찾아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느라 빨리 찾아가지는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싶어 1994년 가을께 작정을 하고 양심수후원회를 찾아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을 시작했지요."

▶그 당시 활동할 때 후원회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같은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었어요. 사실 냉정하게 호불호를 판단하고 후원회에 가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밝힌다는데 이것저것 가린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당시에는 세상의 변혁과 변화를 바라는 욕구가 컸고 나와 사람들의 생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했지요. 처음 만나는 회원들 모두가 오랜 친구이거나 형, 누나 같았어요. 혈육 같으면서도 동지 같은 끈끈하고 애틋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금방이라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올 것 같은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요. 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분들이 있어요. 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러 분들에게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내 삶의 방향을 잘 잡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00년에 북녘으로 돌아가신 선생님에게서 받은 감명은 참 컸어요. 그 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감화를 받기도 했지요. 어떤 부분은 내 삶의 지표가 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그분들이 훌륭하다고 여긴 것은 그만한 일들을 하시고도 늘 겸양과 양보, 솔선수범을 하시는 모습은 내게 크나큰 감명을 주었어요. 나는 외가나 친가 쪽의 할아버지를 뵙지 못 하고 자라서 그런지 그분들이 내게는 할아버지 같았어요. 특히 조창손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나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지요. 어느 해 성탄절에 내 손으로 케이크를 빚어서 가져갔는데 어찌나 맛있게 잡수시며 기쁘게 웃으시는지 그 장면이 지금도 결코 잊히지 않네요. 제 생각에는 그 케이크가 그토록 맛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걸 맛있게 잡수어 주시는 선생님의 깊은 마음에 나는 눈물이 날 만큼 존경심이 우러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조창손 선생님 생각은 자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래모임에서, 선생님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당신을 그리며>라는 노래를 2005년에 지어서 노래모임 회원들 앞에서 불렀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서울의 양심수후원회 회원들 앞에서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을 좀 소개해 주시지요.

"1991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제과제빵 기술을 익혀 8년간 맛있고 영양가 있으며 몸에 이로운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가을께에 갑자기 왼쪽 손이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보니 내가 알지 못 하는 동안 손 안에 병이 깊어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빵을 빗는 제빵사에게 손을 못 쓴다는 것은 직업에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캄캄했지요. 왼손의 신경이 마비되어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해 결국 제빵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여러 날을 고민하고 번민하다 서울을 떠나 다시 광주로 되돌아왔습니다. 당시의 건강으로는 서울에서 살기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시작해도 내가 자라고 배운 광주에서 하는 게 더 나을 듯했기 때문이죠. 광주로 되돌아와서 운전을 배운 다음 한동안 택시회사에 취직해 택시 운전을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25인승 소형 버스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독서실 차량을 운행하고 낮에는 귀여운 유치원 아이들을 태운 유치원 차량을, 오후에는 학원 차량을 운행합니다. 주말에는 가끔 택시운전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름다운가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했다던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얘기 좀 해주시지요?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내 나라 처자를 아내로 맞지 못해 멀리 베트남 처자를 배필로 맞았습니다.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갑자기 일이 빠르게 성사되어서 미처 알리지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을 반드시 후원회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회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2006년 7월에 결혼과 관련한 베트남 법이 바뀌어 외국인이 베트남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베트남에 2번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신부를 맞으러 2006년에 베트남에 두 차례 갔습니다. 첫 번째는 9월이었는데 호치민 시내에서 지금의 아내와 선을 보았고 그녀의 가족들과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다시 베트남에 가서 아내의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 공무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은 한국에서 외국인 아내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와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국내의 졸렬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개하고 있던 참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일주일쯤 머무르면서 공무원들과 아내 그리고 처가 식구들을 만나 인사도 하고 잘 살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일주일 내내 베트남 음식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만했는데 나중에는 김치 생각이 나서 누우면 천장에 김치가 아른거리더라고요. 음식 습관은 참 무서운 것이란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쌀국수는 참 맛있었습니다."

▶아내 자랑 좀 해주시지요.

"아내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 이곳에 와서 사는 게 몹시 힘들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또한 남편인 나만 믿고 멀고 먼 곳으로 왔는데 가끔은 남편인 나와도 뜻이 통하지 않아 서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불편한 손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줄 때면 아내가 참 착한 여자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과 말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성실하기도 하구요. 서툰 말로 몸짓발짓 해가며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귀엽(?)습니다. 하하하!"

▶결혼 전과 후에 다른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 가정을 꾸렸다는 게 아직은 실감이 잘 안 됩니다.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감이나 두려움을 모두 뛰어넘을 만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매우 행복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결혼식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꽃피는 4월에 고향인 빛고을(광주)에서 할 계획입니다. 결혼식의 사회자와 주례는 정했는데 아직 날짜를 잡지 못 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제일 먼저 후원회 회원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회원들의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 큽니다.

▶최근의 사회적 논쟁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지금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공원 이름을 지으며 전두환을 기리자는 뜻으로 '일해공원'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심한 격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토록 존경할 인물이 없어서 제 나라 국민을 학살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자의 호를, 단지 제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의 호를 공원 이름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난 일요일(2월 3일)에 합천을 다녀왔어요. 논란이 되는 공원에를 갔는데 그 자를 맹종하는 사람들이 내건 찬성 플랫카드를 보면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세력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5 · 18 관련 단체는 성명서 한 장 달랑 내고 지역감정이 우려된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1997년 광주 망월동이 국립묘지로 승격된 다음 5 · 18 단체는 너무 변했어요. 이런 단체는 보상과 기념사업에만 몰두하고 진실 규명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장이라도 5 · 18단체는 합천으로 달려가 합천군청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고 광주시민의 진정한 마음을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화운동의 단 열매를 얻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휘장)를 단 386의원들.

그들이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의 그 순수했던 마음은 정치권에 들어가 어디에다 다 팽개치고 뜨뜻한 양지 속 권력의 품에 안주하면서 권력자의 비위나 맞추는 그들이 정말 실망스러워요.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님과 민가협 어머님들이 피땀 흘려 그들의 석방운동을 한 건 그들이 지금처럼 저렇게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이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사람은 초심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민중을 사랑하고 분단된 조국을 사랑한다면서 시작했을 학생운동의 그 순수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나는 노래에 관심이 많아요. 노래를 부르고 듣고 함께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중가요가 내 마음에 와 닿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에게 처음 배운 민중가요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항상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래와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으면 하는지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 되겠지요.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아요. 또 제발 부당하고 황당한 세력이 확 줄어들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그 무엇보다 큽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까지 우리 세상을 밝히고 맑히는 후원회원들 함께 손잡고 가고 싶습니다. 늘 건강을 지키면서요."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그 헤아림이 깊으면 상처를 지닌 사람의 아픔을 절절하게 안다. 그는 아픈 땅에서 아픔이 뭔지 알고 자랐을 것이다. 아픔을 알았기에 아픈 사람의 상처를 보고도 못 본체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웃는 순간에도 우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남의 인권을 해치고도 부당함을 항의하는 이들에게 힘으로 윽박지르는 세상에서 부당한 힘에 타협하지 않고 그 부당함을 감시하고 철폐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과 대열을 함께 하며 어깨를 겯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형근 회원은 그런 사람들의 대열에 늘 서 있었고 지금도 서 있다.

2007년 새해 첫 산행을 다녀와서

조동문 | 후원회 회원

겨울잠을 자고 있는 봄꽃들이 얼굴을 내밀어도 되겠구나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유난히도 따뜻한 한겨울의 일요일이었다. 추워야함에도 이렇게 포근하게 우리를 맞이하는 산을 보니 올한해 따뜻한 일들이 많아지리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약속장소인 평창동의 북악정 입구에 가니 벌써 많은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보니 아시는 분들보다 처음보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서 자주 뵙지를 못했다는 죄송함이 .....앞으로, 자주 찾아뵈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0시에 모여 올라가기로 했는데...아직, 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 지 권오헌회장님께서 내내 전화를 하신다. 그러다가, 10시 30분쯤 되어서야 다 오셨다. 어른(16명)과 어린이(4명) 다해서 총 20명이 산행을 하기로 했다. 김수룡선생님께서는 개인일로 얼굴만 뵙고 그냥 가셨다. 모두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뿐사뿐 잘도 걸었다. 조금 올라가니 매표소가 나왔다. 올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우린 기쁜 마음으로 통과했다. 귀여운 초등학교 어린이 4명과 선생님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하면서 형제봉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급할 게 없다는 마음에 여유를 갖고 틈틈이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도 박고, 차 한 잔에 목을 축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을 했다. 늘, 보는 산이지만 직접 오니 더욱 산의 소중함을 만끽할 수 있어 좋았다. 거기다가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하니 힘이 저절로 솟아나는 것 같았다. 특히, 오랫만에 탁트인 곳에서 서울 시내를 둘러보니 마음도 가벼웠다.

홍일점(?)인 김순자선생님께서는 등산화를 신지 않았음에도 가뿐하게 산을 타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선생님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이에 질세라 우리 꼬마 회원들도 다람쥐마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놀이터

마냥 즐거웁고 신나게 올라가기에 보는 우리들도 즐거웠다.

작은 형제봉을 지나 큰 형제봉을 오르지 않고 영불사쪽으로 내려오는 양지바른 곳에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었다. 집에서 사온 맛난 음식들이 입맛을 돋구었고, 막걸리 한잔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정다웁게 담소를 하면서 즐거운 만찬을 이어갔다. 생각 같아서는 저 높은 정상까지 가고 싶건만...다음으로 기약하면서...국민대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내려오면서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응달진 곳에서 겨울 정취를 만끽하듯 사진을 찍는 연출도 했다. 또, 경사진 바위에서는 암벽타는 산악인마냥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즐거움도 누렸다.

거의 내려오니...약수터가 있는 공터가 있었다. 그곳에서 잠시 짬을 내어 권오헌회장님의 진행으로 올 한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들으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고받는 덕담과 올한해도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진보진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짐하기도 하면서...

특히, 양심수없는 해, 국가보안법없는 해, 자주 통일의 해가 되도록 온몸을 다하자는 각오를 새기면서 ...

자리를 털고 조금 더 내려오니 국민대정문이었다. 시간을 보니 2시 50분이었다. 10시50분쯤 올라갔으니 약 4시간의 산행이었다.

그리고나서 뒷풀이장소인 김교영선생님댁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갔다. 집으로 들어가니 사모님과 (류기진,조순덕,임미영)선생님들이 반겨주셨다. 오늘 뒷풀이를 위해 사모님께서는 건강이 별로임에도 일주일 전부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고, 조순덕선생님과 임미영회원도 음식준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차려온 음식을 보니 ...

입이 벌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이었다. 오늘 못오신 선생님들은 아마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았을까하는...

집에서 담근 머루술로 즐거운 뒷풀이를 했다. 5시 정도에 들어와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간간히 김래곤회원이 가지고 온 가슴 뭉클한 동영상도 감상하면서... 너무 폐를 끼쳐 일어나려고 해도 사모님과 선생님께서 자꾸 붙잡았다. 그러다가, 사모님께서 특이한 술을 한병 내오셨는데...사위가 중국 귀주에서 가지고 온 53도짜리 마오타이라는 귀한 술이었다. 선생님께서 아끼신 술인가 본데...술에 대해 잘 모르시는 사모님께서 아마 대접을 할려고 꺼내온것 같았는데 선생님께서 귀한 술인데 ...하시면서 즐겁게 따라주셨다.

8시30분이 지나서야 일어났다.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산행을 마무리했다. 정말 오늘처럼 우리 양심수후원회 식구들 모두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내내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무튼, 시작이 반이라고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한 이번 산행을 계기로 자주 선생님들을 뵙고 좋은 일들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내리라 다짐을 하면서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음 산행에 뵈올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알립니다

2월 산행 안내

도봉산에 오릅니다

- 일시 : 2월 25일(일) 오전 10시
- 만나는 장소 : 우이동 종점 그린파크 앞
- 준비물 : 간단한 도시락, 회비 3천원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7년 1월 28일 현재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장석철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2006-12-12	공갈			수원구 312	미결
강우성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12-19	집시,공갈,갈취			대구구 60	미결
정승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1	미결
지갑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8-23	업방,폭력,집시			포항교 3072	미결
진남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하중근 사망규탄집회	2006-08-17	집시	2년	항소중	포항교 3071	미결
김봉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5	미결
김명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4	미결
김병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2	미결
최규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	2006-10-02	집시	2년6월	항소중	포항교 3075	미결
정은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0	미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3년6월	상고중	대구교 29	미결
권영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1년6월	상고중	대구교27	미결
손영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	2006-12-20	업방방해,폭력			포항교 3078	미결
심진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3	미결
유기수	노동자	건설연맹	8.9 노동자대회(포항)	2006-08-14	집시	2년	항소중	포항교 3069	미결
변문수	노동자	건설운송(우리도시레미콘)	노조설립 관련	2007-01-09	업무방해			수원구 320	미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12-29	업방,폭력	10월+8월	2007/06	부산교 874	기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7-05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8/01	대구교 52	기결
김문섭	노동자	기아차노조(광주)	한미FTA반대집회(광주시청)	2006-11-26	집시,폭력			광주교 3318	미결
홍진성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대추분교행정대집행 항의	2006-10-13	특공,치상	1년6월	항소중	안양교 3023	미결
김영성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파업	2006-10-17	업방,폭력			수원구 337	미결
김문영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대추분교행정대집행 항의	2006-10-13	특공,치상	1년6월	항소중	안양교 3100	미결
한인구	노동자	덤프연대	노조활동 관련	2006-12-05	업방,폭력			평택구 204	미결
배연길	노동자	만도기계 노조(문막)	한미FTA반대 집회	2001-01-10	집시,공방			춘천교 2016	미결
조한경	노동자	민주노총(강원)	한미FTA반대 집회	2007-01-10	집시,공방			춘천교 2017	미결
김종수	노동자	민주노총(강원)	한미FTA반대 집회	2007-01-10	집시,공방			춘천교 2021	미결
김영수	노동자	민주노총(강원)	한미FTA반대 집회	2007-01-10	집시,공방			춘천교 2024	미결
김병일	노동자	민주노총(경북)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2년	상고중	대구교 46	미결
류봉식	노동자	민주노총(광주전남)	한미FTA반대 집회	2007-01-10	집시,공방			순천교 147	미결
김창근	노동자	민주노총(충남)	한미FTA반대 집회	2006-12-30	집시,공방			대전교 2118	미결
황우찬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하중근 사망규탄집회	2006-08-17	집시	2년	항소중	포항교 3070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2005-02-22	명예훼손,정통법	3년+2월+6월	2008/10	영등포교 13	기결
최화섭	노동자	전교조(서울)	이적표현물	2007-01-18	국보			중랑서	미결
김맹규	노동자	전교조(서울)	이적표현물	2007-01-18	국보			혜화경찰서	미결
곽영수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한국노총항방	2006-12-18	폭력	1년	항소중	영등포구 3431	미결
강성철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한국노총항방	2006-09-19	폭력	1년6월	항소중	영등포구 3402	미결
변외성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한국노총항방	2006-09-19	폭력	1년6월	항소중	영등포구 3403	미결
박상길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한국노총항방	2006-09-19	폭력	1년	항소중	영등포구 3404	미결
연제일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한국노총항방	2006-09-19	폭력	1년	항소중	영등포구 3405	미결
김현호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한국노총항방	2006-12-18	폭력	1년	항소중	영등포구 3432	미결
이기웅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한국노총항방	2006-12-18	폭력	1년	항소중	영등포구 3434	미결
엄기준	노동자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2003-12-10	집시,폭력	1년6월+2년6월	2007/11	대전교 2999	기결
정성훈	노동자	충남건설노조	한미FTA반대 집회	2007-01-17	집시,공방			천안구 5557	미결
권수정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소송법	8월	항소중	대전교 70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노조	대량해고반대 농성	2005-11-05	특공,치상	1년6월	2007/05	순천교 1300	기결
이상득	노동자	화물연대(대구경북)	파업(일지테크)	2006-12-21	교통방해, 폭력			대구구 51	미결
엄기현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파업	2006-12-27	교통방해, 폭력			울산구 20	미결
김대운	노동자	화물연대(전남)	파업	2006-12-02	교통방해,폭력			순천교 268	미결
성기석	노동자	화물연대(전남컨테이너)	파업	2006-12-02	교통방해,폭력			순천교 221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최상진	노동자	화물연대(전북)	파업	2006-12-28	교통방해,폭력			남원경찰서	미결
손장민	노동자	화물연대(전북)	파업	2006-12-06	교통방해,폭력			장수경찰서	미결
홍종선	노동자	화물연대(제천)	파업	2006-09-28	업방집시	8월	2007/05	강릉교 579	기결
박경연	노동자	화물연대(충청강원)	파업	2006-09-28	업방집시	8월	2007/05	안동교 1127	기결
박재호	노동자	화물연대(포항)	파업	2006-12-04	교통방해,폭력			포항교 3077	미결
김태상	노동자	화물연대(포항)	파업	2006-12-04	교통방해,폭력			포항교 3076	미결
손정목	재야	개인	회합통신	2006-10-24	국보			서울구 113	미결
이진강	재야	개인	회합통신	2006-10-26	국보			영등포구 3476	미결
최재영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3-06	병역법	1년6월	2007/09	진주교 1204	기결
박 철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11-07	병역법			영등포구 2426	미결
전욱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2004-11-18	국보	3년6월	2008/05	광주교 5009	기결
장민호	재야	개인	회합통신	2006-10-24	국보			성동구 33	미결
김훈태	재야	교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5-22	병역법	1년6월	2007/11	논산구 370	기결
최희정	재야	민권연구소	이적표현물	2006-08-18	국보			서울구 241	미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회합통신	2006-10-24	국보			서울구 109	미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회합통신	2006-10-26	국보			영등포구 3413	미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 방문	2006-10-23	국보			수원구 305	미결
김영진	재야	민주노동당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7	의정부교 1723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2004-06-20	특가법	1년+6월	추가기소	춘천교 451	미결
강순정	재야	전 범민련	회합통신	2006-11-28	국보			서울구 197	미결
김태훈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5-17	병역법	1년8월	2008/01	군산교 1215	기결
이용석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8-18	병역법	1년6월	2008/02	수원구 316	기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3년	2008/06	경주교 500	기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2년6월	2007/12	목포교 22	기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3년	2008/06	안동교 15	기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3년	2008/06	홍성교 200	기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03	화염병,치사	6년	2009/05	장흥교 11	기결
유현미	재야	전철연(용산)	강제철거반대	2006-12-20	업무방해	4월	항소중	영등포구 4243	미결
오정록	재야	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8	서산구 103	기결
김도형	재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1-26	병역법	1년6월	상고중	영등포구 2876	미결
김병설	학생	강원대	한총련 불탈퇴(13기)	2006-12-22	국보			춘천교 2018	미결
송인욱	학생	서울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11-23	병역법	1년6월	2008/05	영등포구 2616	기결
박경수	학생	성공회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12-14	병역법	1년6월		성동구 1974	미결
김대형	학생	조선대	한총련불탈퇴(12기)	2006-11-22	국보집시			광주교 5052	미결
고동주	학생	카톨릭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9-21	병역법	1년6월	2008/02	영등포구 2305	미결
이태진	노동자	화물연대	파업	2007-01-22				남원경찰서	미결
신성재	재야	전농강원도연맹	한미FTA반대집회					춘천교도소	
김덕수	재야	전농강원도연맹	한미FTA반대집회					춘천교도소	
김문섭	재야	민주노총광전본부	한미FTA반대집회					광주교도소3318	
김기영	재야	민주노총광전본부	한미FTA반대집회					광주교도소3309	
기원주	재야	민주노총광전본부	한미FTA반대집회					광주교도소3322	
위두환	재야	민주노총광전본부	한미FTA반대집회					광주교도소3317	
김양호	재야	민주노동당대전시당	한미FTA반대집회					광주교도소 1911	
황의경	농민		한미FTA반대집회					대전교도소3172	
정현우	재야	대전충남운동본부	한미FTA반대집회					대전교도소2050	
김상권	재야	전농경북도연맹	한미FTA반대집회					대구구치소67	
이상정	재야	전농충북도연맹	한미FTA반대집회					청주교도소244	

01

200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12.30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진행된 '송구영신 및 새해맞이 금강산기행'의 주요행사로 새해 첫날 해금강에서 '2007 평화기원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가 진행되다 (183호 기사)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신문' '조선인민군보' '청년전위' 등 3개 기관지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국조선의 일대전성기를 열어나가자!'란 제목의 공동사설을 발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공동사설은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 등 자력갱생원칙과 핵억제력 보유로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 경사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운동의 3대과업으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꼽다

02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문상봉 선생님들께 새해인사를 드림. 또한 고성화, 신현칠 선생님을 비롯한 사회원로들께 전화로 새해인사를 드림

평택미군기지확장문제와 관련 평택시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와 주민대책위사이에 공식대화를 갖다. 주민측은 지난달 28일 병보석으로 출소한 김지태위원장과 김택균 사무국장 심영섭 대표 등이, 정부측에서는 국무조정실 주한민국 이전대책 기획단 김석춘부단장과 국방부 관계자가 함께하다. 이날 합의된 의제로 미군기지확장 사업 재협상과 주민이주 및 생계지원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지다.

서울역 부근 통일광장 사무실에 한찬욱운영위원 방문하여 김영승, 안희숙선생님께 신년 인사하다.

춘천 한림대 총학생회는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구속학생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1인시위에 들어가다. 지난 해 12월 27일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3기 강원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으로 활동했던 '05년 한림대 총학생회장'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강제연행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03

남측민주노총과 북측조선직업총동맹이 공동으로 '새해맞이 남북 노동자 금강산 반전평화 통일기행'에 민조노총 진경호통일위원장의 방북이 불허되다. 진경호위원장은 지난해 5월 평양방문 때 혁명열사릉 참관과 관련 보수단체의 고발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팽성읍 대추리 농협창고에서 팽성주민대책위가 주최하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촛불문화제 855일 째가 열리다. 문화제에서 김지태위원장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하여 큰 박수를 받다. 대추리 도두리주민과 범민련남측본부 통일광장 등 시민사회단체 성원 등 70여 명이 함께하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은 지난 2일 자정까지 마감한 총 진정수는 595건이며 이병이 142명, 일병이 부사관급 77명, 상병 61명, 병장 46명, 위관급 37명이라고 밝히다. 사망연대별로는 1980년에 125건(21%), 1990년대 112명(18.8%), 2000년대 103건(17%), 1970년대 97명(16.3%) 이었으며 1950년 87건, 60년대 71건이라고 하다. 군의문사위원회 활동의 법정확정시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진보적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 윤원석대표의 아버님이 노환으로 별세하시어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예식장에 문상다녀오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4

민가협 647회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이영상임의장의 여는 말에 이어 이른바 일심회사건으로 구속된 이정훈님의 부인 구선옥님과 권오헌 공동의장의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이어 성대 노래패 아우성이 <우리 하나 되어>는 노래로 이들을 격려하고 최창준(민주노동당 성동지구당 위원장)...새해 인사 및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발언이 있었음

통일부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남북왕래인원이 (금강산관광객제외) 101,708명으로 전년도 88,341명에 대비 15%가 증가했다고 밝히다. 경제분야가 87.845명 사회문화 4,324명, 이산가족 2,127명, 대북지원 6,530명이며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된 이래 100만 명이 넘었고 남북교역은 전년대비 27%가 늘어난 13억5천달러라고 하다.

05

일산비전향장기수 신현칠 선생님 댁에 한찬욱운영위원 신년 인사차 방문하다.

06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핵폭탄을 적재할 수 있는 미 전략폭격기들이 지난 5일 북을 겨냥한 공중타격 연습 감행을 비난했다고 연합통신이 전하다. 중앙통신은 "이날 8시경 괌도의 기지에서 이륙한 'B-52' 전략폭격

기들이 항로상에서 급유를 받으며 남조선 지역 상공에 날아들었다" 면서 "이 폭격기들은 남조선 강점 미 제7항공군 전투기 등과 함께 직도와 상동 사격장을 작전무대로 해 우리측 주요 대상물들을 노린 지상 대상물 타격연습에 광분했다"고 주장하고 또 "미제 침략군 비행대들이 새해벽두부터 핵탄을 적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들을 남조선 지역 상공에 투입하여 대상물 타격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미제가 조선에서 모험적인 핵전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써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통신이 전하다.

후원회의 핵심회원이며 장기수선생님과 통일운동에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신현익 회원의 모친 하금순 님이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 계시다가 인천의 아드님댁에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3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화정과 강화 가는 길에 있는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게도 연락이 미처 받지 못해 아무도 찾아뵙지 못하는 큰 결례를 범하였습니다. 늦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국과 일본정부가 한반도유사시를 상정한 항만 영공사용 및 후방지원활동 등 구체적인 활동부분을 정하고 '공동작전계획' 수립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하다. 두 나라는 이 계획에서 한반도의 유사사태를 상정,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에 이르지 않는 '주변사태와 일본유사에 해당하는 무력공격사태 등에 대한 대응을 '정세' '작전임무' '실시' '보습' '지휘통제'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다. 이미미. 일은 1997년 방위협력지침' (신가이드라인)에서 공동작전 계획과 상호협력 계획을 각각 작성하기로 합의했었음

0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심리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핵심 인사로 알려진 장민호씨에 대한 검찰심문이 이어지다. 장민호씨는 감찰이 말하는 북의 대남통일사업담당자로부터 '하향문서'와 플로피디스켓을 전달받은 사실, 북공작원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 중국에서 공작원을 접촉한 사실 등 심문에 대해 보고가 아닌 전달이었으며 지시가 아닌 토론 논의였고 통일의 동반자로써 북측과 논의 했을 뿐이라고 답변하다. 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는 "아직 증거 확증이 되지 않은 검찰 조사 당시 자료들(컴퓨터 로그 분석으로 복구한 문서들)을 제시하며 장민호씨의 기억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했다"며 "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장민호씨의 진술에 대해 정식 문제제기 할 방침"이라고 말하다. 이어 진행된 같은 사건 손정목씨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손정목씨는 민주노동당사무부총장 최기영씨에 대해 "같이 통일사업을 하는 관계에서 뜻을 같이 했을 뿐 조직원으로 포섭하지도 않았고 어떤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최기영씨가 중국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한 사실을 들은 바 없고 최기영씨로부터 문건을 받아 장민호씨에게 보고하거나 전달한 바 없다"며 며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손정목씨는 '고등학교 1년 선배인 장민호씨와 통일사업에 대하여 통일운동일 뿐 조직체를 갖고 북한과 연계된 것이 아니다' 라고 검찰의 추궁에 잘라 말하다.

09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식과 투쟁선포식이 열리다. 진보진영내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의 사업계획발표에 이어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부문 및 지역 참가단위 소개, 민주노동당 김선동사무총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제남 운영위원장의 연대가 있었음. 이어 공동준비위원장과 지역단체대표의 결의발언, '희망새' '우리나라' '아름다운 청년' 등 합동축하공연이 이어지다. 이어 한청 이승호의장과 한총련 장송회의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이영 민가협상임의장과 손미희 김선동 님이 대국민호소문을 낭독하다. 출범선언문에서는 "한국진보운동이 이룩해온 성과를 하나의 힘으로 결집시켜 우리사회의 진보를 이룩하고 민중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한국진보연대(준)을 건설하고 이를 통한 단결과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며 "공동의 목표아래 진보진영 전체의 힘을 결집하고 연대투쟁을 통해 진보운동진영의 투쟁력과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과 전농 문경식 의장, 전빈련 김흥현 의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전국여성연대 윤금순 대표, 민중연대 정광훈상임의장,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의장을 인준하고 출범구호로는 '진보진영 총단결로 민중승리 쟁취하라' '한미 FTA저지하고 반전평화 실현하자' '자주통일 이룩하자' 등으로 하다.

09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들 200명이 '자주.민주.통일의 총공세 2007 반미반전 투쟁선포식'을 열다. 이 자리에서 덕성여대 김지선 총학생회장은 "2007년 미국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미중간선거에서 지고, 세계곳곳에 반미정권이 들어서는 등 이제는 반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며 반미기치아래 전민족이 단결하는 한해를 만들자고 강조하다. 참가자들은 투쟁선포식 결의문에서 '반보수대연합은 대선 승리의 결정적 담보' 라며 "반전평화,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에 총결집하여 2007년 대선을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로 이끌자"고 밝히다.

미국이 끊임없이 이북이 제조했다고 주장해온 1백달러짜리 위조지폐 이른바 '슈퍼노트'가 미국 중앙정보국에 의해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독일을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짜이퉁"이 7일 보도했다고 언론들이 이날 보도하다. 신문은 '미국의 정보기관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밀특수공작에 들어갈 자금을 대기위해 워싱턴 DC에 위치한 CIA 소유의 비밀인쇄소에서 위폐를 만든 것으로 안다'고 하다.' 알게마이네짜이퉁'지는 독일의 대표적 중도우파권위지로서 기사를 쓴 돌라우스 W.벤드기자는 이 신문사에서 30년간 일해온 경제전문기자이며 특히 위폐분야를 다룬 저서 '위폐의 비밀'을 펴내기도 했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강순정(76세) 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다. 검찰은 강씨가 2001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128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야단체 내부 동향과 각종 선거 동향등 국가기밀 16건을 포함해 133종 329점의 문건 등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다

서울 용산의 미 8군사령부 밴플리트 홀에서 주한미군사령관 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는 지난 2004년에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면서 "만약 정치적 이유 또는 예산문제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면 이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망발하다.
벨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 "2009년에 전환해도 한미동맹과 대북 억지력, 전쟁수행능력에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2009년에 이양될 수 있고 미 국방부 수뇌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2월 6일 주한미군에 대한 내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대비 6.6% 늘어난 7천255억 원으로 책정하고 2008년에는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민주노동당은 9일 오전 영등포구 문래동에 새 당사를 열다. 민주노동당원과 축하손님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사전 길놀이에 이어 민주노동당간판 제막식이 있은 다음 4층 회의실에서 개소식을 진행하다. 문성현당대표의 인사말,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축사 권영길 노희찬 심상정의원 등의 대선승리 과일주를 담그는 상징의식을 갖다.

번동 박정숙, 김선분댁에 사월혁명회 전 상임의장 황건선생님과 한찬욱운영위원 신년 인사차 방문하다.

광화문 광화문우체국 6층 통일부 '북한자료센타'에서 양심수후원회가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영화보기' 1월 모임을 갖다. 이번 영화는 '민족과 운명' 제 29부(노동계급제 6부)였고 통일광장 김수룡 선생님 이순정 김래곤 강덕환 김희선 모성룡 권오헌 임미영 이득형 이정태 한찬욱 조동만 회원이 함께 하였음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후원하는 '고난모임'에서 지난 연말에 선생님들과 식사를 함께 한데 이어서 만남의 집에 쌀 60Kg을 보내오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선생님들을 알뜰하게 챙겨주시는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10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에 사과하고 구속자에 대한 사면 복권조치 기지확장사업재협상 이주단지와 이주시기에 대한 주민입장존중 저소득층 노인층에 생계지원수립 대토문제 및 일자리 알선 대추리에 평화역사관 건설들을 촉구하다.

11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벨 주한미군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이에 대항해 싸우겠다(I will fight this)"고 밝힌 것에 대해 통일운동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벨 주한미군 사령관을 규탄하다.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명의의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정부와 한국민을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전투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아니다"며 벨 사령관의 항의는 "한국에 비용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성동격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총 공사비의 상당액 또는 대부분을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받아내려는 의도"라며 비난하다.

서울중앙검찰청 정문 앞에서 통일연대 범민련남측본부 평통사 등 공동주최로 '반통일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철폐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을 그리는 팔순노인 강순정선생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다. 강순정 선생님은 지난 11월 30일 구속됐고,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 이규재범남본의장의 여는 말, 권오창,실천연대표, 김판대 평통사회원사업팀장 등 규탄발언과 이영 민가협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간첩혐의' 기소 적용이 상식에 벗어난 비인도적 처사이며, 공안탄압의 전형이라고 밝히다 효순이, 미선이 사진의 경우 북측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의 자료들이며, 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의 경우 '평화와 통일의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자료로 청와대와 정부관계부처에 보내졌던 자료로,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려진 자료들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촉구 기자회견'을 11일 오전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 제21조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것과 '헌법 제37조에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기고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적인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다"고 밝히며 초헌법적인 집회 및 행진에 대한 금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다.

민가협 648회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임기란 운영위원의 여는 말에 이어 이승우(추모연대 활동가)씨의 복면금지 조항 집시법 개정 반대 발언이 있었음. 이어 박영옥 회원이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을 중단하라>라는 글을 낭독하였음

공덕동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사무실에서 '고 박영두 유족 공소시효배제 등 과거청산기 전달식'이 있었음 이병주 집행위원장 사회로 민중의례에 이어 권오헌 상임대표의 인사말 이덕우 명예회복위원장의 경과보고, 고 박영두열사의 형 박영일님의 유족인사, 고인의 동료 이상훈씨의 지난 사례발표 등이 있었고 고인의 형님인 박영일님이 권오헌 상임대표에전달하고 노수희 공동의장의 감사인사가 있었음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김동오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이정훈 전민조노동당중앙위원에 대한 검찰 직접심문이 있었음 이정훈씨는 답변에서 북경출장에서 북공작원을 만나 통일사업 등 지시 받은 일 없고 장민호씨에게 북공작원으로부터 사상학습을 받았거나 장민호씨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공소내용을 부인하다. 또한 민노당 관련자료 작성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형식으로 장민호씨에게 전달 한 바없다고 답변하다.

12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평화집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찰 수십 명이 경찰청 정문 좌우로 진을 치고 있었음. 농축수산 비대위는 FTA 협상이 시작되는 16일 집회를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정부와 경찰도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의 단체가 참석하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은 용산 국방부 앞에서 시설종합계획(MD)공개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혈세 퍼주는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주한미군기지시설 종합계획 협상결과에 따르면 평택기지확장관련 총비용이 10조원 안팎이며 한국의 공식부담은 부지매입비 등 5조5805억원인 것으로 되다 그러나 공식부담액 이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1조6800억)등 포함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재배치일환으로 68억달러(6조8천억원)비용을 대기로 했다고 주장하다. 또한 미군가족주택임대료 환경오염평택지원특별법 등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1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하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전교조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최환섭 김맹규 교사를 인터넷상에 북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로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하여 관련문서와 컴퓨터 본체, CD 등을 압수하는 행패를 자행하다.

원상교원대학교원으로 6.25전쟁시기 남에 내려와 교육사업을 하시다가 퇴로가 막혀 입산 전남도당 노동신문 주필 등을 하시다가 전남 광양 백운산에서 검거되어 오랜 옥고를 치루신 정관호선생님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에 오셔서 후원회 소식 안진걸 편집위원과 지난 시기 살아오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은 올해 83세에 노인인데다 지난해 큰 수술을 받으셨고 아직도 투병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13

1984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 열사의 20주기 추모제가 고인의 모교인 부산시 중구 보수동 혜광고 강당에서 열리다. '부산 박종철열사 기념사업회'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추모제에는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들, 혜광고 동문, 열사의 학교 은사,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해 열사의 넋을 기리다.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는 인사말을 통해 "20년 전 한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독재의 하수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독재와는 살 수 없다고 국민들이 소리지를 때 그 해 6월 또 다른 사람이 마수에 쓰러졌습니다" 라며 당시의 아픔과 충격을 떠올렸다. 이날 추모제는 헌화와 추모공연에 이어 '6월항쟁 20주년의 의미'를 주제로 한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특강을 끝으로 마무리하다.

오랫만에 아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광주에 계신 회원 정형근님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너무 좋은 바람에 회원들에게 미처 알릴 틈도 없이 예쁜 신부를 모셔왔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어서 이리 행복한 줄 몰랐다며 처음의 마음을 잘 지켜 신부에게 잘해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가끔 홈페이지에 살맛나는 신혼일기 올리겠다고 합니다. 아주 아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회홍보잡지 금수강산 최근호(2006년 12월호)는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에 끼친 패해자료 라는 글에서 이북돈으로 (현재가치) 9천81조7941억원(미화64조 869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전 65조 9383억원, 전쟁시기 6872조398억원, 전후시기 2143조 5260억원이라고 하다. 유형별로는 인명피해액 3663조352억원, 물자 및 화폐재산 60조 1360억원 생산손실액 3 021조 5508억원, 환경파괴와 오염에 의한 피해액 70조 7498억원. 인명피해액 산정근거로는 총 피해자 506만 771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 142만7870명이 납치피해자 91만 1796명 행방불명자 391,749명 부상자2,519,356명으로 집계하다. 재산피해는 고정재산 2258조160억원 물자및 화계 재산 60조 1360억원 기타재산 7조70061억원으로 추산했고 생산손실액 산정에서는 경제봉쇄에 의한 손실액 기타재산 1992조 1949억원 파괴로 인한 손실 766조1298억원, 침략위협에 의한 손실은 333조 2260억원으로 추산하다. 피해액산정은 일달러에 이북화폐 140원으로 하다.

13

마석모란공원열사묘역 고 문익환목사 묘소에서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기념사업회' 주최로 13주기 묘소 참배식이 열리다. 유족과 친지, 사회단체성원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빛교회 유원규목사 사회로 추모묵념 추모기도에 이어 장영달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상근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추모사가 있었고 추모노래로 다함께 '그대 오른 언덕'을 불렀으며 고인의 손자 문바우군이 유족인사말을 하다. 마지막으로 유족들과 함께 사회단체별 헌화가 있었음.

14

서울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마당에서 고 박종철 열사 20주기 추모행사가 열리다. 건물에 대형 영정이 내걸린 가운데 영화배우 오지혜씨 사회로 추도의례에 이어 박중기 추모연대 상임의장은 6월 항쟁의 성과에 대한 공치사를 배제하고, 열사의 죽음으로 이뤄낸 군부독재의 종말이었건만 정치꾼들의 야합, 일부 항쟁 주역들의 기회주의적인 기존 정치권 편승으로 6월 항쟁은 허상이 되어버렸다고 질타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꾸었던 '참민주'를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추진위'의 상임공동대표인 청화스님이 "죽어 큰 사람이 된 그대" 추모시를 낭독하고 가수 안치환 씨는 '친구2'를 부르다 참가자들은 열사가 생전에 즐겨 불렀다는 '그날이 오면'을 합창하면서, 1부 추모식 행사를 끝내다. 이어 고인이 고분치사당한 대공분실 509호실을 찾아 헌화하다. 오후 3시부터 건물 7층 세미나실에서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 선포식'이 열리다. 행사에는 백기완 선생, 함세웅 신부 등 민주인사들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고진화, 이목희, 안상수 의원 등 정치인, 민가협과 유가협, 추모연대 등 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등 500여명이 참가하다.

13~14

양심수후원회를 후원하는 '옴시롱감시롱 2007년 총회'가 서산의 박근직 회원 댁에서 1박 2일 동안 있었습니다. 모성룡가족이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음식 준비며 사람 맞을 준비를 하고 박근직 김봉례회원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처럼 회원들을 맞고 돌보고 챙겼습니다. 돌아 올 때는 고향을 잃어버린 회원들에게 무우청이며 무며 가래떡 등을 골고루 챙겨주시며 정 듬뿍 담아주셨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발 담그고 살아가야 우리에게 사람은 모름지기 이리 살아야 한다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행동으로 보여주셨지요. 새해 옴시롱을 책임질 일꾼은 회원들이 몇번을 쓰려다가 아껴두었던 카드, 바로 이현근선생이 올 한해 일을 맡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06년도의 재정보고와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를 딛고 빼쪽이 올라오는 냉이처럼 온힘을 다해 밀어올리는 그런 힘을 느낄 수 있는 총회였습니다 참석자 박근직 김봉례 모지희, 신현부 신준철 신다인 모성룡 김정옥 모아라 모두리 모세미 노혁 도은주 노혜민 서은숙 김길자 김향숙 김재현 소수영 임미영 김현숙이, 이용 (김혜순정리)

15

전교조 서울지부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여 지난 13일 경찰이 인터넷사이트에 이적성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전 통일위원장 2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인권탄압이라며 강력히 항의하다.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12일 전교조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교사 2명의 자택에 진입, 분명한 혐의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영장을 앞세워 압수수색을 강행하여 각종 문서와 CD, 육아일기, 가족사진과 사생활 일체가 담긴 교사의 컴퓨터를 압수하는가하면 학교에서 사용중인 컴퓨터까지 압수했음.

전교조는 성명에서 공안당국이 '짜맞추기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시대적인 수사관행이라고 비판하고 "최근 계속되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수사는 공안당국의 시대착오적인 용공조작 음모로,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교권탄압과 공안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수사 기관 내에 잔재하는 구시대적 공안세력 퇴출'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다.

서초동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김동오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 이진강씨 검찰직접심문이 진행되다. 이진강씨는 답변에서 장민호씨로부터 정세분석 등의 지시와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일운동차원에서 서로의 의견을 토론하고 그 내용을 서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하다. 이어 이른바 일심회사건의 한 사람인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심문이 진행되다. 최기영씨는 검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수사관행과 국가보안법적용 때문이었으며 통일문제와 관련 사상이념을 떠나 자주 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해야하며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있다라고 말하다.

한미FTA 6차협상이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신라호텔 건너편 장충교회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한미FTA 중단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협상목표 하나도 못따낸 망국적 협상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오종렬 대표의 여는 말에 이어 방송 농축수산 영화 등 각 분야 대책위 대표들의 결의발언과 미국노총산별회의 <제프. 보그터> 정책국장 등 연대사가 있었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협상의 중심이 공식협상이 아니라 고위급 밀실협상으로 이동되고 있다며 '묻지마타결'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거센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다. 이보다 앞서 이른 아침 민노당은 신라호텔 로비에서 한미협상반대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부당한 제지로 호텔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 끝날 때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가다.

16

혜화동 대학로에서 농민, 노동자, 민주노동당 당원, 학생 등 한미FTA를 저지하고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의 수만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FTA저지 민주노동당 결의대회가 열리다. 경찰의 부당한 한미FTA저지 범국민결의대회불허방침 속에 열린 민주노동당 결의대회는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사회로 문성현대표의 대회사와 최고위원 등이 모두 등단하여 15일부터 단식농성장에 들어감. 민주노동당의원단 대표 권영길의원의 농성투쟁결의발언이 있었고 김선동 사무총장의 대회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결의문에서는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20년을 맞은 오늘 민주노동당은 한미FTA협상저지를 위해 우리국민의 생존과 미래를 쟁취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대전의 해를 만들 것이라고 하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를 열다. 오종렬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한미 FTA저지 10개 부분 대표들이 함께 단상에 올라 각 부문의 투쟁결의발언이 있었고 윤금순 전여농회장의 결의문낭독 마지막으로 미국소화형식을 갖고 대회를 마치다. 참가자들은 소속단체별로 한미협상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쪽으로 지하철 등을 이용 이동하다. 대열은 경찰의 원천봉쇄 등 집회 방해를 뚫고 신라호텔 주변에서 3천여 명의 모여 정리집회를 열다. 문경식 전농의장 민노당, 강기갑의원 민노당 고종환서울본주장 등 협상 중단 촉구발언 등이 있었음. 한찬욱 김래곤 회원 함께했음.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FTA저지범국본과 열린우리당 최재천의원실 공동으로 한미 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발표에서 민변 이찬진변호사는 한미FTA관련 현재 공표된 내용물 기준으로 169개 정도의 법률이 상충될 위험성이 있다며 한국의 주권사항인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위헌적 협상이 될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밝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서비스분과 관련된 52개, 투자금융분야에 29개와 27개로 집계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송기인)은 이른바 '이중간첩이수근사건'과 관련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가에 대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권고하다. 이수근사건은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 홍콩으로 출국 캄보디아로 향하던 중 사이공 공항 기내에서 중앙정보부 직원에게 체포, 국내로 압송 위장귀순간첩 혐의 로 처형된 사건임

제주도에 계신 출소장기수 고성화 선생님께서 만남의 집으로 맛있는 제주감귤을 보내오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17

6자회담 당사국인 이북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베를린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전격 회동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에 미 국무부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만남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교환되었다며 생산적인 다음 회담을 해 지난 번 회담(2단계회의)에서 제출되 제안과 아이디어들에 보다 집중했다'고 밝히다.

신라호텔 맞은 편 장충교회 앞에서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와 지적재산권공대위의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건완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빅딜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의 자격이 없다 하고 이어 같은 자리에서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위 기자회견을 열고 스크린쿼터 축소와 방송시장 개방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다. 이어 시청각공대위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한미FTA반대 방송광고' 불가에 대한 규탄 목소리와 한미FTA 협상중단을 촉구하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31년 옥고를 치르고 1988년 12월 21일 출소하여 전북익산에 혼자살고 계신 맹기남선생님께서 이날 노환 등으로 전주 온누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맹기남선생님은 올해 87세로 함남 영흥이 고향이시고 평양동구역에 사시다가 남쪽에 오셔서 옥고를 치루었으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광화문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제88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를 열다. 이날집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저지,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RSOI/FE(연합전시증원연습/독수리훈련)계획 중단, F-117 스텔스 전폭기 철거, 평택 전쟁기지 건설비용 부담 반대를 위해 올해 2007년 반미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중앙통신은 독일 신문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위조화폐문제는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통신이 전하다. 중앙통신은 '화폐위조의 장본인은 미국이다'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세계적인 문젯거리로 되고있는 위조 달러의 출처가 미국이라는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짜이퉁'지가 유럽과 아시아 위조지폐 전문가들이 수년간에 걸쳐 진행한 연구결과와 인쇄기 제조업체 관계자의 증언에 기초해 미중앙정보국이 워싱턴 교외의 비밀인쇄시설에서 위조지폐를 찍어내고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하고 "위조달러 문제, 불법거래 문제는 미국에 있고 그들이 떠드는 화폐위조설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수행을 목적한 조작물"이라며 "현실은 화폐 위조와 관련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이 미국에 의해 조작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화폐위조설은 미국의 자작극이고 미국은 서툰 연극의 막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다.

18

후원회 소식지 제 183소식지 최종교정본 창 미디어에 넘기다. 권오헌 임미영 참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는 '재일동포에 대한일본 내 테러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다.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이후 재일동포, 특히 조총련계 동포들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일본 사회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조총련계 학생과 학교 건물 등이 욕설이나 물리적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테러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다.

민가협 제649회 목요집회가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 말에 이어 안은주(시사저널 노조 사무국)님의 시사저널기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정원철(동국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대책위)님의 강정구교수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금까지 재판진행과정과 법원의 공정한 판정을 촉구하는 발언과 권오헌 공동의장의 한미FTA 6차협상의 쟁점과 의미를 정리하는 발언이 있었음

장안동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압수시색 강제연행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마구잡이식 용공몰이 중단하고 김맹규 최환섭 두 교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다. 문경식 전농의장 민조노동당 동대문지역 정주영위원장 전교조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등 규탄발언과 이규재범남본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문에서는 선군정치와 관련된 표현물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평화학교'와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nk조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조선일보사장부터 조사하라고 주장하다.

19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6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주일간의 투쟁을 정리하며 이번 6차 협상을 계기로 본격화된 고위급 밀실협상을 통해 정부가 공공연히 흘리고 있는 소위 '빅딜론'에 대해, "무역구제 분야는 지난해 12.27. 미 무역대표부에서 미 의회에 법률개정이 불가함을 보고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이 끝났는데도, 마치 무역구제에서 무언가 얻을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퍼주기 협상'을 호도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이는 "'빅딜'이 아니라 '사기 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다. 이들은 또 6차협상을 계기로 금융시장, 투자자-정부제소제도, 자동차 시장, 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시장 개방, 노동.환경 분야 등 미쳐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서 미측의 새로운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한미FTA 반대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이재석판사) 심리로 지난 해 만리포해안에서 있었던 '만리포한미연합상륙훈련반대 기자회견'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집시법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된 범남본 이규재의장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다. 검찰의 직접심문과 변호인의 반대심문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인측은 만리포훈련을 헌법상의 침략전쟁부인원칙 6·15공동선언 등을 비롯 주한미군의 임무를 소극적 방어에만 머물러야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위배된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다 이규재의장 평통사 유영재사무처장 오혜란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 등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상륙훈련반대기자회견은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부시정권의 대북핵선재공격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민족적 저항이라며 당시 작전상황을 설명하던 지휘관이 '평양공격' 등을 명령한 것은 '적전계획 5027-04'가 명시하고 있는 '북한군격멸' '북정권붕괴' 한반도 평화여건조성 등을 실천하는 침략전쟁연습으로 헌법상 평화통일원칙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고 하다. 또한 '오키나와' 괌 등지에서 온 외국장병들이 공무수행의 주체인지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다. 재판장은 검찰에 공무의 적법성 등을 다음 공판에서 설명하라고 요구하였음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07년 신년하례 모임 및 후원회 제 18차년도 제 8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음. 김규철 노중선 지도위원과 모성룡 이득형 조명희 한찬욱 권오헌 운영위원 임미영사무차장 조순덕어머니 김희선 김은하혜승 회원이 함께하여 김규철 노중선지도위원의 새해덕담이 있었고 다같이 희망새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전원석방 자주통일 반전평화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다. 이어 운영위원회세서는 지난해 12월 활동보고와 재정보고에 이어 3월 중에 있을 금강산통일기행과 서화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이날 소식지 183호 발송작업도 함께 하였음

20

이북 노동신문은 개인필명 논평에서 '지난11일 미국의 F-117스텔스전폭기 1개대대의 군산기지 이동배치와 관련 미제 호전광들은 지난해 말 <남조선. 미국연합 전시증원훈련>을 올 봄에 사상최대규모로 벌일 것을 발표하고 뒤이어 스텔스전폭기대대를 남조선에 투입했다'며 6자회담을 파탄내고 북침선제공격으로 우리를 해치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했다고 이북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21

새해 첫 양심수후원회 회원 산행의 날- 평창동북악파크호텔 앞에서 20명이 모여 북한산 형제봉 능선에 올라 전망대 남쪽형제봉을 거쳐 북쪽형제봉 바로 아래 양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국민대 쪽으로 내려오다. 내려오는 쉼터에서 함께 한 분들 소개 시간을 갖고 형불사를 지나 국민대를 내려오다. 다시 김교영 선생님댁까지 걸어서 도착. 선생님댁에 미리와 계셨던 김수룡 류기진선생님과 신동철선생님의 사모님 장필순선생님 조순덕민가협 전상임의장 임미영후원회사무차장과 만나다. 김교영선생님 사모님이신 이해옥선생님을 도와 푸짐한 음식이 차려지고 그동안 산행 때다마 있어왔던 시사교양강좌는 특별한 강사없이 6자회담 국가보안법관련 한국진보연대(준)출범 등에 대해 권오헌대표의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해 설명이 있었음. 이어 해물과 보쌈과 빈대떡 등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으로 뒷풀이를 하다. 류기진선생님께서 새해덕담과 건배제의를 하셨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음 (소식지기사참고) 류기진 김수룡 김교영 이해옥 송세영 안학섭 강담 김영식 김영승 신동철 장필순 김순자 조순덕 김지선 신현익 조동문 김래곤 박철민 이병건 이호현 나순석 나민정 나민지 노희영 임미영 권오헌 함께 했음

22

후원회소식지 183호를 회원 966명에게 발송하다.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9상임대표정일용)은 오는 5월 주한 미공군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싱카포르와의 연합훈련인 <코만도 슬림> 훈련참가 예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의 사전포석으로 보면서 우려를 표명하다. 성명은 '주한미군(코만도 슬림>참가가 주한미군측의 설명과 달리 전략적유연성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생각한다. <코만도. 슬림>은 실전대비훈련으로 전략적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진출에 대비한 것이다.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은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 동북아지역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재심공판을 담당한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문용선)는 '인혁당재건위'를 반국가단체로 판단했던 종래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고 같이 기소 돼 역시 유죄판결을 받았던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다. 무죄 선고의 이유와 관련,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했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등 위반 증거자료 목록 중 경찰과 검찰 조서 내용이 고문과 구타에 의한 '강제자백'으로 인정되는 바,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진술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고 또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인정 내용을 전면 부인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판조서의 증거능력도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재심의 당시 검찰이 피의자들의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대부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혁당재건위 관련자들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법이 없어진 관계로 면소판결을 내린다고 재판부는 밝히고 변호인들이 제기한 '긴급조치'의 위헌 문제는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다. 이로써 억울하게 사법살인당했던 도예종열사 등 8명에 대해 32년 만에 무죄판결과 진실이 밝혀지다. 마치고 유족들과 천주교인권위원회인혁당 민청학련 관련단체 회원들은 법원 앞

에서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 전국민주청년 학생연맹사건 재심 무죄 판결 환영기자회견을 열다. 문정현신부의 여는 말, 김형태 변호사의 경과보고, 당시 민청학련 주모자로 몰렸던 이철씨 등 소감과 유족으로 고 하재완열사의 부인 이영교님이 소회를 밝히다.

영등포민주노총회의실에서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설명회 및 통일연대 신년하례식이 있었음 소속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한충목 공동원영위원장 진행으로 진보연대(준)의 출범의의 및 필요성, 성격과 기본방향, 구성, 조직체계 및 강령, 건설 경로 및 일정, 사업계획 개요 등을 박석운 공동운영위원장이 설명하다. 그러나 진보연대의 성격 추진과정과 진로 등에 대해 납득되지 않은 점에 대해 권오헌 정동익 김영승 이성근 대표 등이 질의를 했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본조직 결성에서는 보완하겠다는 진행자의 말로 마치다. 이어 통일연대 신년하례식은 한상렬상임대표의 인사말, 이소선 임기란 임방규 이규재 대표 등 격려말과 민주노총 조준희위원장 전농 문경식의장 한청 이승호회장 한총련 15기 준비위 류선민위원장 등 결의 발언등으로 모두마치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대북사업자금 전용가능성에 대해 <월. 스트리트저널>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반박하다. 애드멜커트 UNDP 총재 보는 22일자 <월. 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UNDP가 제공한 자금이 이북의 핵개발 자금에 전용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지난 1999년 2001년 2004년 감사에서도 자금전용가능성 우려는 없었다 '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다.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형사23부, 문용선 재판장)에 한찬욱운영위원 방청하다.

23

북핵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한국 대표들과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모색했다"면서 "협의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히다. 김 부상은 이날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직후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6자회담에서는 2005년 제4차 6자회담 당시 발표한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차기 회담을 조속한 시일 안에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의장국인 중국이 참가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확한 회담재개 일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하다.

전북 군산시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군산평통사' 등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서울 평통사 회원 등 200여 명은 '군산미군기지 스텔스기 즉각 철수를 위한 기자회견' 을 열고 한반도전쟁위협 중단하고 스텔스전폭기 즉각철수를 촉구하다.

25

서초동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김동오부장판사)심리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장민호씨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진행되다 장민호씨는 미국에서의 공개적인 반정부활동, 제 3세계의 민중들이 미국에서 자신의 나라를 도우기 위한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 또 재외한국인의 자유로운 북한왕래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족경제사업가를 택하게 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을 밝히다. 이어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같은 사건의 손정목씨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세서 손정목씨는 장민호씨와 나래애니메이션을 공동운영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경제사업을 통한 간접지원형식의 통일사업을 하려 했다며 장민호씨는 지식인을 넘어 지성인으로 존경했으며 양쪽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지냈다고 하다. 또한 반대심문답변에서 사상 주제사상 국가주권 외교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서 해박한 지식과 철학적 깊이를 훌륭하게 드러내다. 사대주의와 관련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뿌리내려 아직도 미국이익만을 대변하는 보수세력이 이라크파병 한미FTA 등 노예침략전쟁에 동원되고 명분도 경제적 실익도 없는데 주체의지를 잃고 있다고 비판하다. 통일방안에서는 연합제와 연방제를 비교설명하며 사상이념을 넘어 민족적 대단결하는데 연방제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다. 검찰에서 말하는 이적단체에 대해서도 강령도 없는 이적단체의 존재가 가능한가고 되묻고 공소내용을 부인하다.

지난 1월 17일 전주 온누리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시던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희망자 맹기남선생님께서 이날 갑작스런 급성폐렴증상으로 원광대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주최로 '전교조 구속교사 석방과 국가보안법폐지 결의대회' 를 열다. 60여명의 교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두 교사가 평소 통일교육에 헌신해왔다며 신분이 확실한 교사를 구속하는 공안당국을 규탄하며 즉각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다.

26

이북외무성 대변인은 대북강경파들이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지원 자금 전용 의혹제기하고 나선 것과 관련 "황당한 모략"이라고 잘라 말한 것으로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문>이 보도하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통해 "미국이 유엔기구들의 협조 문제를 악용해 반공화국 소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엔개발계획을 비롯한 유엔기구들의 협조 활동은 철저히 유엔 규정에 부합되고 투명성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미국은 너절한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얼마 되지도 않는 UNDP의 협조 자금을 우리가 '핵무기 개발에 유용했을 수 있다'는 생뚱같은 거짓말까지 꾸며내 반공화국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엔개발계획을 비롯한 유엔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협조문제를 정치화하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은것이며 조건부이거나 부당한 협조는 애당초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다.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 650회 목요집회가 열리다. 이영상임의장의 여는말 과 오승환(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님의 전교조교사의 구속 부당성과 권오헌 공동의장의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사례 보고가 있었음 또 서경순 운영위원의 국가보안법철폐촉구 발언에 이어 마지막으로 박영옥 회원의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활동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맹규, 최화섭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다.

27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신문은 "유엔군사령부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완전해체되어야 하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모든 핵전쟁 장비들을 걷어가지고 하루빨리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범죄적인 북침흉계의 발로'라는 제목의 기명 논평에서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이 최근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시조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또 "미제가 미국 남조선 연합군사령부 해체 후에도 유엔군사령부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남조선을 영구강점하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라며 "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대해 "미군의 남조선 강점이나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통제권, 북침전쟁책동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남조선 강점을 강화하고 북침야망실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라고 지적했다고 전하다.

낙원동 '이문학회' 사무실에서 '이문학회' 주관으로 '노촌이구영선생님 100일 탈상제'를 올렸습니다. 서지학자이며 문우서림 대표인 김명복대표 주재로 선생님의 영정과 지방 (현고학생부군)을 모시고 정성들인 음식을 차려 유족들의 첫잔을 올림과 제자인 다큐멘터리사진작가 김문호씨의 축문에 이어 제자들과 지인들이 잔 올려 분향재배를 하며 한평생을 조국사랑과 학문연구 후학양성에 헌신해 오신 선생님의 높은 덕목을 기리고 탈상을 아쉬어 했습니다. .

민주노총 제 39차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제5기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이석행 이용식조가 2차투표를 통해 당선되다. 지난26일 올림픽공원 내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대의원대회 사전 기념식에는 조준호위원장의 기념사 전농 문경식의장 민노당 문성현대표 등 연대사가 있었고 이어 진행된 위원장과 사무총장선거 1차 투표에서는 참석대의원 951명 가운 469표로 1위 득표를 했으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자정을 넘겨 27일 1.2위조의 2차투표에 들어가 919명 대의원 중 이성행 이용식후보조가 482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되다 이석행 이용식 사무총장조는 '비정규직과 함께' '민중과 함께' '산별시대 민주노총재창립'을 주요 구호로 했고 중요정책 공약으로는 60만 하청노동자를 산별노조에 가입 300만 표 30석 전략으로 대선 총선 승리 노동자 농민연대강화와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 등을 내세웠음. 부위원장 선거에서는 기호 8번 허영구(541표) 조봉희(522)후보만이 과반수를 넘어 당선되었고 여성명부 부위원장에는 김은주(530) 김지희(600) 진영옥40)후보가 과반수를 넘어 당선 확정되다.

29

서울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는 사진작가로 평화통일활동가이며 인터넷뉴스인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 중인 이시우씨의 자택과 작업실에 대해 압수수색 하다. 이날 아침 보안수사대 10여명이 인천 강화 소재의 이시우집에 몰려와 4시간에 걸쳐 자택과 따로 떨어져 있던 작업실을 수색하여 이씨 부인의 노트북과 개인 사물 자녀의 컴퓨터 본체는 물론 작업실에 비치된 서적과 자료 명함 등 132개의 품목을 가져갔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압수수색영장에서는 이시우씨의 군사시설촬영 등과 관력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인터넷기자협회 등은 통일인권 언론 등 시민사회단체는 연명으로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즉각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다. 성명서에서는 "창작예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며 무분별한 공안몰이"라고 못박고 '미군무기와 기지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공식취재지원을 받아가며 기사화했다고 공안당국의 국가기밀누출 등 국가보안법 적용을 규탄하다. ,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김동오)심리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손정목씨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에 이어 이정훈씨에 대한 변호인반대시문이 진행되다. 심문에 앞서 이정훈씨는 재판부에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기정사실화화 하고 또한 적화통일야욕을 가진 불법단체라는 전제하에 국가보안법을 적용받

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해 유엔 사무총장과 이북의 유엔대표부와 유엔대사에게 질의서 등을 보낸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그 답변서를 참고해 달라고 요청하다. 유엔사무국과 사무총장에게 보낸 질의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대한민국(ROK)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인가? 2. 북한(DPRK))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3. 만약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면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유엔에 반국가단체가입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유엔이 여러 차례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과 사상탄압을 이유로폐지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유엔의 입장이 현제 변함이 없는가? 등이다. 이후 반대심문에서 이정훈씨는 '일심회' '북공작원' '지령' '지시' '보고' 등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은 이날 총회를 열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 위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6·15공동선언발표 7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는 평양에서, 8.15통일행사는 남측지역에서 하자"고 남측 및 해외측 위원회에 제의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안경위 북측위원장은 "북과 남의 계층별 단체들의 통일행사들도 합의되는 장소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올해의 조국통일운동 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빠른 시일 안에 소집하자"며 북과 남 해외와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은 가장 폭넓게 망라하고 있는 전민족적 통일운동의 연대조직인 6.15공동위원회는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대중적 지반을 확대강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다.

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 강순정(77)씨 첫 공판이 열리다. 이날 공판에서 강순정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기소 요지에 대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해 본 적없다"며 "평생 통일을 위해 힘써왔는데 군사정권하에서나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의 잣대로 처벌하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항변하다.

국방부민원실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소속회원과 사회단체성원 50여명이 함께하여 64회 평화군축집회를 열다. 임종철 공동대표의 여는 말, 고동길 평화군축팀 국장, 박석분,평화군축팀장 등 결의 발언과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이 국방부장관에 보내는 항의문서를 낭독하다. 이어 국방부정문까지 행진 우리 지도에 붙여진 첨단무기모형을 뜯어내 국방부 안으로 던지고 대신 평화의 상징 비둘기 모형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갖다.

명륜동 민가협 사무실에서 새해 청 운영위원회를 열다. 열여덟번째 인권 콘서트 등 사업 및 활동 보고와 인권콘서트 재정보고 및 2006년 10월에서 12월까지 회계보고 등이 있었고 안건으로 국가보안법폐지운동 테러방지법 입법반대와 집시법 개악저지 조작간첩 진상규명운동 재정확보운동 한국진보연대(준) 참여문제 등 논의하다.

지난 23일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故 이수병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다. 기술적으로는 1심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며, 특히 "30여년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 온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덧붙이다. 이로써 1심에서의 '무죄' 선고가 법원의 최종결정이 된 셈이다.

31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사이의 제2차 금융회담이 30일 북경주재 미대사관에 이어 이날은 북경주재 이북대사관에서 열렸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오광철 북한 국가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이 그간 양 당사자 간 궁금한 내용을 담은 질문서를 교환하면서 간접협의를 진행해왔고 기술적인 이해관계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그결과에 기대한다고 보도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 이하전농)은 저'11기 2차년도 대의원 대회'겸 금강산통일기행을 위해 대의원 참관단 가족 등 1,700여명이 이날 오후 금강산에 도착하다. 오후 늦게 부터는 금강산문화회관에서 북측의 금강산가극단의 통일한마당 공연을 관람하다. 한편 금강산 호텔 2층 식당에서는 북측농업근로자동맹대표와 6.15남측위 농민본부 대표자 만찬이 있었음. 만찬에는 북측에는 북측 조선농업근로자동맹 홍정철부위원장과 백석 국제부장 유재숙부원 등 10여명이 남측에서는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와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 통일연대 한상렬 목사,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농민연합 정재돈 상임대표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함께 하며 6·15공동선언이행과 통일농업 등 새해 남북농민대표의 결의를 다짐하다.